

# 성도의 벗

성도의 벗 1990년 5월호 / 1990년 5월 1일 발행 동권 289호 / 1990년 2월 24일 제 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종로구 청운동 7번지 ☎ 110-030



5  
1990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성도의 벗

1990년 5월호



## 일 반

3

대관장단 메시지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것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8

나의 비회원 선교사  
체리 엘 모로우

10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베니그노 판토하

16

부부 선교사  
엠 러셀 벨라드 장로

22

모든 회원은 선교사임  
복음을 전하는 간단한 방법

34

형제애  
돈 엘 서얼

38

시작이 반  
리차드 다니엘스

65

아시아 지역 회장단 메시지  
복음을 함께 나눔  
멀린 알 리버트 장로

66

교회 및 지역소식

## 청소년란

25

선교사 준비  
지금 시작하십시오

26

알아야 할 성구

27

복장과 몸차림  
어떻게 선교사 부름을  
받는가?

28

지침물

29

교회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함  
선교사 일과표

30

질의 응답  
저도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42

단편 소설  
윌라드 왓츠 계획  
엘마 제이 에이츠

## 정기 특별 기사

1

애독자 편지

24

방문 교육 메시지  
봉사를 통해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33

물론 메시지  
끓주리지 않게 함

## 어린이란

50

종이등, 월병 그리고 책  
내네트 라스 던포드

53

심심풀이  
가족 재결합  
수잔 믹스

어느 광대인가?  
로베르타 엘 페어올

54

친구가 친구에게

56

어린 선교사  
존 비 피시(가빈의 아버지)

58

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로렐 롤핑

60

사라처럼  
클레어 미쉬카

62

물론경 이야기  
리하이의 꿈

선교사와 같은 잡지

리아호나(스페인어 판)에서 총관리 역원의 메시지 및 간증을 즐겨 읽는 것은 저의 큰 특권입니다. 그 말씀에는 예언과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리아호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총관리 역원이 모두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나올 때면 언제나 제가 애독하는 이 잡지를 갖고 나오며 영감을 주는 이 잡지를 집에 두고 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리아호나는 물론경보다도 먼저 제 손에 들어 왔습니다. 1960년대로 기억하는데, 당시 저의 큰 딸이 간염에 걸렸을 때 선교사들이 내게 잡지 한 권을 주면서 딸에게 읽어 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의 다음 메시지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습니다."(연차 대회, 1964년 4월) 이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제가 자라난 가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잡지에 실린 영감에 찬 메시지를 읽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메시지가 우리를 일생 동안 인도해 줄 계시 및 경전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고도이 데 판토라 라 플로리다 제2와드, 산티아고 칠레 라 플로리다 스테이크

물문경을 이웃에게 줌

저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성도의 벗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신 예언자에게 계시해 주신 영감에 찬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성도의 벗에서 물문경에 우리의 우정과 간증을 담아서 이웃에게 줌으로써 물문경으로 "세상이 차고 넘치게"해야 한다는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의 권고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물문경 100권을 이웃에게 주는 목표를 정하고 물문경에 가족 사진과 간증을 담아 비회원인 친구나 와드 선교사에게 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예언자의 말씀에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조금도 의심없이 믿고 있으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호상 불광 와드, 서울 북 스테이크

온 가족이 기다리는 잡지

네덜란드에 사는 말일성도 가족으로서 읽을 만한 좋은 책을 찾기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책과 잡지가 교회 표준에 못미칠 때가 종종 있을 때 우리는 회복된 복음의 영향력이 아쉽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가족은 모두 매월 테 스테르(독일어 판)를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는 총관리 역원의 말씀을 즐겨 읽으며 여러 성도들의 특별한 경험담을 읽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니콜레트 스타인 부르테 리우와르덴, 네덜란드

독서를 좋아함

저는 여러분이 성취시켜야 할 위대한 임무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이것을 알려야 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일하는 동안 그가 주신 계명을 따르도록 여러분을 인도할 훌륭한 영을 보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어느 곳에서 행해지든지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데 이제까지 저를 도우신 한 가지 방법은 제가 독서를 좋아하도록 축복하셔서 리아호나(스페인어 판)와 같은 교회 서적을 통해 신앙의 인내, 거룩한 성품과 자제력 및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스미스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제 가족이 참된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이 기쁩니다. 호세 에두아르도 가티카 파테말라시티 파테말라

편집 노트

에독자 여러분께 진실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편지와 기사 및 이야기 등을 기다립니다. (성명과 주소, 와드/지부 및 스테이크/지방부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 주신 편지를 참으로 기쁘게 받아 보았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기사를 보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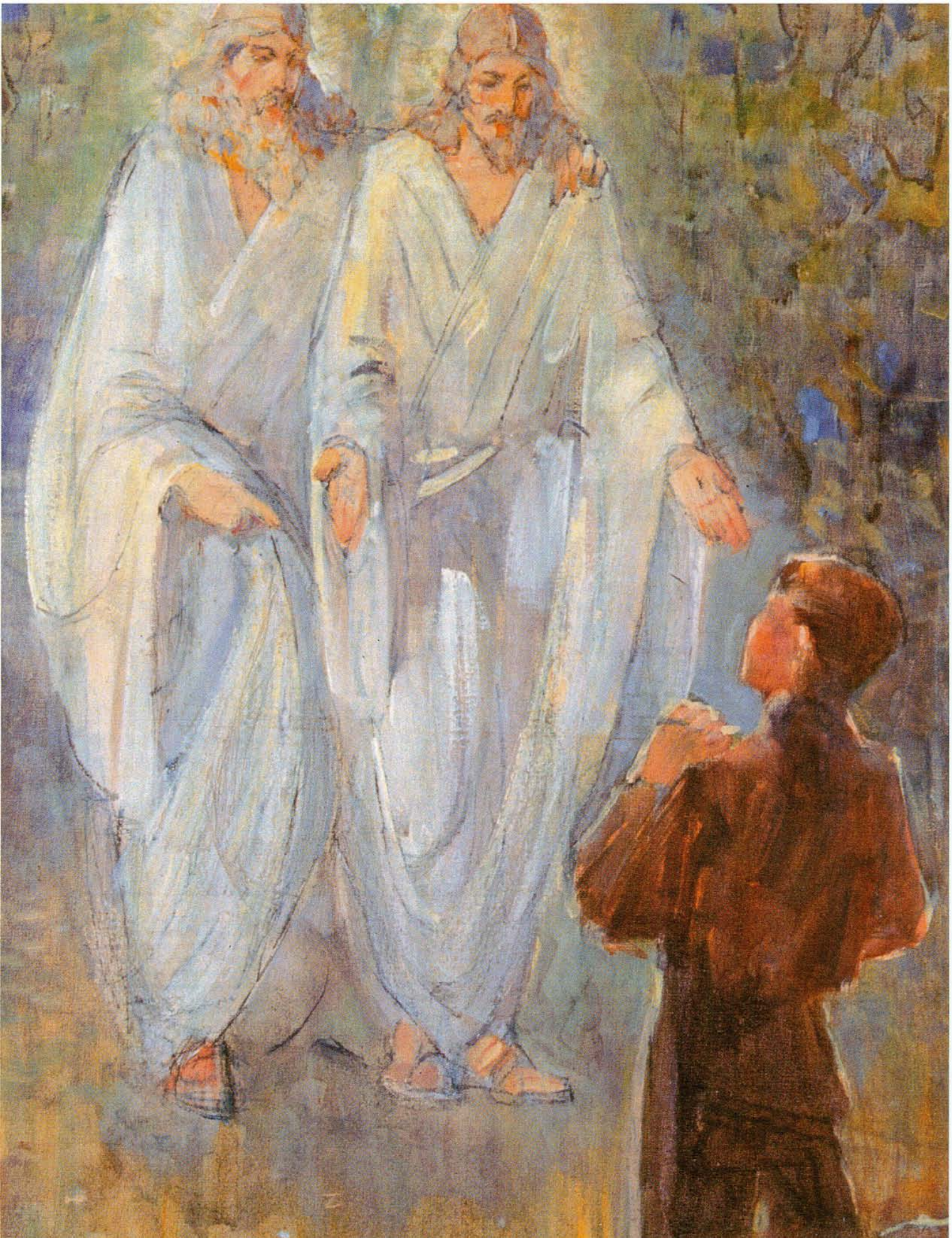
1990년 5월호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입니다. 본 잡지는 한국어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핀란드어 및 프랑스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티히티어. 주간-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에즈라 테프트 벤슨, 고든 비힐러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하워드 더블류언터, 보이드 케이메커, 마빈 제이 애쉬튼, 앨 플레리, 데이비드 비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렐러셀 벨라드, 조셉 비워스런, 리차드 지 스크트 고문: 맥스 디 피네가, 진 알록,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프란시스 엠 기번스, 제프리 알 홀런드 통 권: 제289권, 제27권, 제5호 등 록: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1990년 5월 1일(월간지) 발행인: 한 인 상 편집인: 홍 무 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은행 giro 번호 3001543 인쇄인: 영인쇄주식회사이 세 용 © 1990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1990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ternational Magazine PBMA9005KO Printed in Korea 5/90



#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것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신권이란 은사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도록 위임된 것으로서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축복해 줄 수 있는 특권이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해 전 막내 아들인 클라크가 열 두번째 생일을 맞이할 무렵 내가 그를 데리고 교회 관리 본부 건물을 떠나려 할 때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인사를 하셨습니다. 내가 리 대관장님께 클라크가 곧 열 두 살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자 리 대관장님은 클라크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열 두 살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지?”

클라크는 리 대관장님께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집사에 성임됩니다.”

그것은 바로 리 대관장님께서 바라신 대답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권고해 주셨습니다. “신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나는 클라크와 신권을 받게 될 모든 청소년들이 그 신권을 존중하고 신권이 수여될 때 부여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언젠가 교회 역원이 모인 자리에서 신권의 권세와 관련된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배를 타고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승객이 그분께 가까이 와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맥케이 대관장님께서 그렇다고 하자 그 사람은 다른 종교와 우리 교회의 가르침을 어떤 특별한 믿음으로써 구별할 수 있는냐고 물었습니다. 맥케이 대관장님은 그 당시 언뜻 우리 교회의 특성은 신성한 권능이 있다는 점이라고 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순간 그분은 가톨릭, 콥틱, 희랍 정교회 등과 같이 신성한 권능이 존재함을 믿고 있는 다른 종교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성한 권능 그 자체만 가지고는 질문에 대한 완전한 대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맥케이 대관장님은 그때 다음과 같이 말해야겠다는 영감을 느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구별되는 점은 직접적인 계시에 의한 신성한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소년 요셉 스미스가 기도하러 숲으로 들어갔던 “1820년 어느 이른 봄 아름답고 맑게 개인 날 이른 아침”의 사건을 기억할 때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의 기록에서 그 순간을 묘사하는 말들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요셉 스미스 2:14, 17) 이것은 직접적인 계시에 의해 신성한 권능이 나타난 얼마나 훌륭한 예입니까!

우리는 1829년 5월 15일에 나타난 또 다른 하늘의 사자, 침례 요한의 방문도 생각하게 됩니다. 펜실베이니아주 하모니 근처의 사스케하나 강변에서(교성 128:20 참조) 요한은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손을 얹고 성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종들아, 나는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베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느니라.”(교성 13:1) 그 사자는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지시를 받아 행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침례와 성임이 뒤이었습니다. 직접적인 계시에 의한 신성한 권능에 대한 또 다른 한 가지 예입니다.

때가 되자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하기 위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내려왔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사도들은 요셉과 올리버를 사도와 주님에 대한 특별한 증인으로 성임하고 확인했습니다. 이 성스러운 방문을 통해 직접적인 계시에 의한 신성한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결과로써 우리는 모두 우리가 받은 신뢰와 의무, 즉 축복된 기회와 엄숙한 의무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신권의 맹세와 성약은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교성 84:39~40 참조)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고 순종하며 우리에게 온 부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아론 신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미래의 의무와 책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들이 현재 위치에서 자신을 준비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맹세와 성약에 대해 주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바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룩히 되어 몸이 새롭게 되리라.

“저들은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되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리니,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리라.

“또한 이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다 나를 받아들이는 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나의 종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임이라.

“또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자니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지리라.”(교성 84:33~38)

미베르바 테이처트 그림, “요셉과 올리버를 성임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러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셉 형제님, 형제님은 우리가 부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고 자주 권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고 합니다. “부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것을 중요시하며 정중한 마음으로 지지하고 완수하여 하늘의 빛이 개인의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장로로서 의무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행할 때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는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올 수 있습니다. 나는 집사였을 때 제사들이 성찬을 축복할 준비를 하는 동안 다른 집사들과 함께 예배당 의자 앞 줄에 앉아 있던 적이 기억납니다. 리런드라는 이름의 제사는 “황금”의 목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성찬대에서 축복문을 읽을 때에는 발음이 분명했으며 멋지게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임이 끝나고 나면 그를 칭찬하곤 했습니다. 나는 그가 조금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존이라는 제사는 황금의 목소리를 가진 리런드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존은 청력이 부족했으며 언어 장애도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약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집사들은 존이 기도를 할 때면 조용히 웃곤 했습니다.

• 제사 두 명이 빵을 떼고 회원들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리런드가 기도할 준비를 하자 모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마치 영원한 듯 했습니다. 나는 눈을 뜨고 리런드가 당황하는 모습으로 급하게 기도의 말씀이 적힌 조그만 카드를 찾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눈을 뜨고 의아스러운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청각 및 언어 장애가 있는 존이 리런드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우리 귀에 익은 기도문을 암기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니 이 떡을 먹는 사람마다...”(모로나이사 4:3) 그는 한 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가 예배당을 떠날 때 리런드는 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정원회에서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는 제사들이잖아.”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한 이 제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도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를 바꾸어 놓았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하나님께서 합당케 하신다는 영원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권이란 은사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도록 위임된 것으로서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축복해 줄 수 있는 특권이요 기회인 것입니다.

내가 아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장차 성인 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른 신권을 소유한 젊은이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는 그들에게 배워야 할 기회를 주어야 함은 물론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맬기세텍 신권을 소유한 우리가 부름을 영화롭게 해야 할 특권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목자입니다. 굶주린 양떼는 생명의 떡(요한복음 6:35)을 먹을 준비를 하고 목자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을 돕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신권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기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심을 신앙으로 대치하고 이기적인 싸움을 타인을 위한 봉사로서 감소시킬 때 하나님은 자신의 권세로써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게 됩니다.

약 8년 전 멀리 동독의 드레스덴이라는 도시에 있는 조그만 공동 묘지를 회원 몇 명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비가 하루 종일 내렸으며 그날 밤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우리는 오래 전 주님의 사업을 하던 도중 세상을 떠난 한 선교사의 무덤을 찾아 왔습니다. 무덤 가게 모여 있을 때 우리는 모두 침묵을 지켰습니다. 손전등으로 비석을 비추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습니다.

조셉 에이 오트

1870년 12월 12일, 유타주 비진에서 출생

1896년 1월 10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사망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시 에릭 오트, 성도의 벗, 1989년 5월호, 7페이지 참조)

손전등을 비춰 보고 나니 그 무덤이 공동 묘지에 있는 다른 무덤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묘비는 윤이 나도록 닦여 있었으며 다른 무덤을 덮고 있는 잡초들은 조심스레 제거되었고 그곳에는 대신 잘 다듬어진 잔디와 꽃이 심어져 있어서 누군가 잘 돌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가 이 무덤을 이토록 아름답게 손질했습니까?”라고 내가 물었습니다. 나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결국 12세 된 어느 집사가 부모나 지도자의 권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책임을 수행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섬기는 동안 목숨을 버린 선교사를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국법상 저의 아버지처럼 선교사로 봉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선교사의 육신이 누워 있는 이 무덤을 돌볼 때 선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의 신앙에 큰 감동을 받고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가 선교사로 봉사하고자 하는 큰 소망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앙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집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한 소년을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드레스덴에서 그 특별한 날이 있고 나서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동독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 땅을 빛내 주었고 와드와 스테이크에 예배당이 세워졌으며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회원들의 생활을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1989년 3월 30일 목요일, 50년 만에 교회의 최초의 선교사가 국경을 넘어 동독으로 왔습니다. 이미 구도자들이 공부를 하고 침례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조셉 오트의 무덤을 그토록 정성스럽게 보살피던 소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집사였던 토비아스 버카르트는 현재 장로입니다. 1989년 5월 28일에 그와 다른 아홉 명의 선교사들이 선교사로서는 최초로 외국에서 봉사하기 위해 선교사 훈련원에 입소했습니다. 이 특별한 시간에 그의 느낌에 관해 질문을 받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선교 사업을 할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노력하여 조셉 오트 장로가 저를 통하여 지상에서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조셉 오트의 영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 지 오래되었으며 그의 육신은 멀리 드레스덴에 있는 평화롭게 잘 돌보아지는 무덤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교사 정신은 충실한 장로가 행하는 봉사 가운데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 장로는 오래 전 집사로서 잔디를 다듬고 꽃을 가꾸고 조셉 오트의 묘비를 닦고 오랫동안 선교 사업을 꿈꾸어 왔으나 국법상 허락되지 않다가 이제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의 고귀한 신권을 소유한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에 있는 태버나클에서 가졌던 신권 기념 노년의 모임에서 행한 말씀 중에서 발제한.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교회의 구체적인 어떤 가르침이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는가?
2. 몬슨 부대관장은 맬기세텍 신권을 소유한 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였다. “우리 앞에는 항상... 부름을 영화롭게 해야 할 특권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목자입니다.”
3. 요셉 스미스는 신권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였는가?
4. 신권의 맹세와 성약에는 어떠한 위대한 약속이 언급되어 있는가?

**점**은 어머니로서 나는 남편과 함께 아들을 교회에 데려가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종교에 대해 토론한 적은 없었지만 모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하나님께 어느 교회에 참석해야 할 것인가를 알도록 도와 주시기를 가끔 기도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생후 9일 되는 아기를 포함하여 여덟 명의 자녀를 두고 내가 여섯 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후 여러 해 동안 괴로운 일도 많았지만 나는 교회에서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배운 것은 그곳이었습니다.

첫 아이가 네 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또 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할지 몰랐으므로 진지한 마음으로 자주 기도했습니다.

18개월 후 나는 매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아이오와주의 데번포트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독서를 좋아했으며, 집에 있는 책은 모두 읽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가족이 우리의 맞은편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나는 새로운 이웃과 친해지기로 했습니다. 아마 그 집에는 뭔가 읽을 만한 좋은 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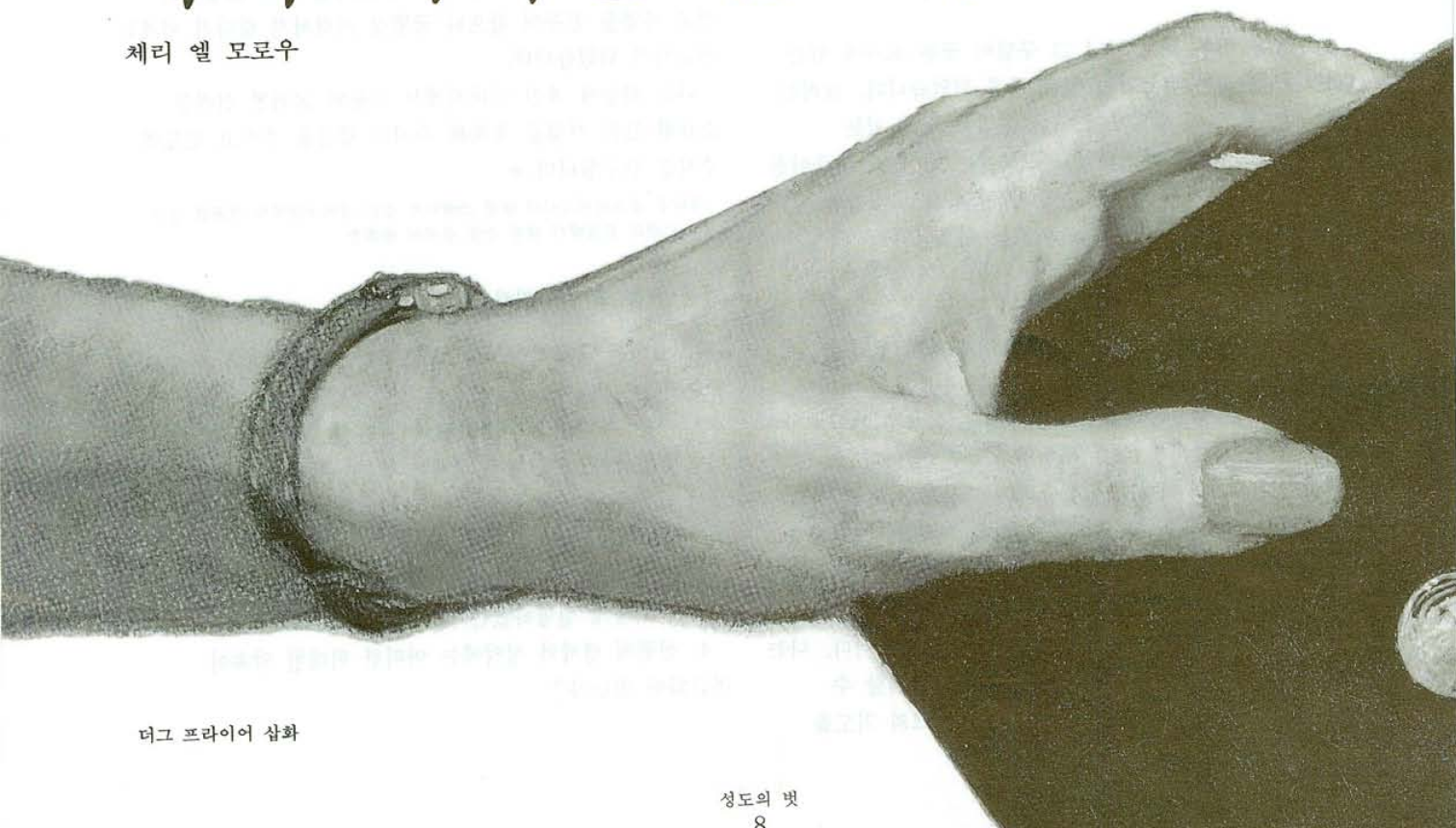
아들이 학교에 가자마자 나는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소개를 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뒤 나는 방문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사집을 실어온 트럭에 자리가 없어서 책을 가져오지 못하고 남겨 두어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몰몬경이었습니다.

그 이웃은 나에게 몰몬에 대해 들어 본 일이 있느냐고 물었으며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역사 시간에 브리감 영이 개척자들을 이끌고 유타로 왔다는 것을 배웠을 뿐이에요.” 그러자 그녀는 역사를 좋아하느냐고 물었으며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몰몬경이 초기 미국인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책이 맘에 들 것이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가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어디서 왔을까 하고 궁금하게 여겼기 때문에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 뒤에 그녀는 요셉 스미스와 그가 어떻게 금판을 얻어서 번역하게 되었는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에 매혹되었습니다.

나는 그 이웃이 교회의 회원이 아닌 것을 알고나서 놀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선교사들이 그녀에게 복음을 가르쳤으며 그녀는 그것이 참되다는 확신을 가졌지만 지혜의 말씀대로 생활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요셉 스미스의 간증을 읽으세요. 이 책을 보신 뒤에는 돌려 주세요.”

# 나의 비회원 선교사

체리 엘 모로우



더그 프라이어 삽화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읽을 때 나는 그와 함께 그곳에 있었던 것같은 느낌을 가졌으며 그것이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나의 이웃은 가끔 확인을 했으며 내가 읽은 것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내가 그 책을 반쯤 읽었을 때 우리는 이사를 하게 되어 그 책을 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나는 그 책을 돌려 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는 내가 선교사에게 연락을 하면 그들이 나에게 물문경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를 한 뒤 나는 선교사에게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계속 미루었습니다. “이것이 만일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들이 나를 찾아내겠지.”라고 나는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이를 학교에 보낼 준비를 하면서 나는 그에게 소리를 치며 꾸짖게 되었는데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즉시 사과를 했지만 그의 눈에서 섬세해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서 머리를 숙이고 보도를 걷어가는 그의 모습을 창문을 통해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평소에는 무척 명랑했습니다. 나는 기분이 몹시 언짢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기도를 드린 후 나는 다시 하나님께 물문경이 참된 책인지 그리고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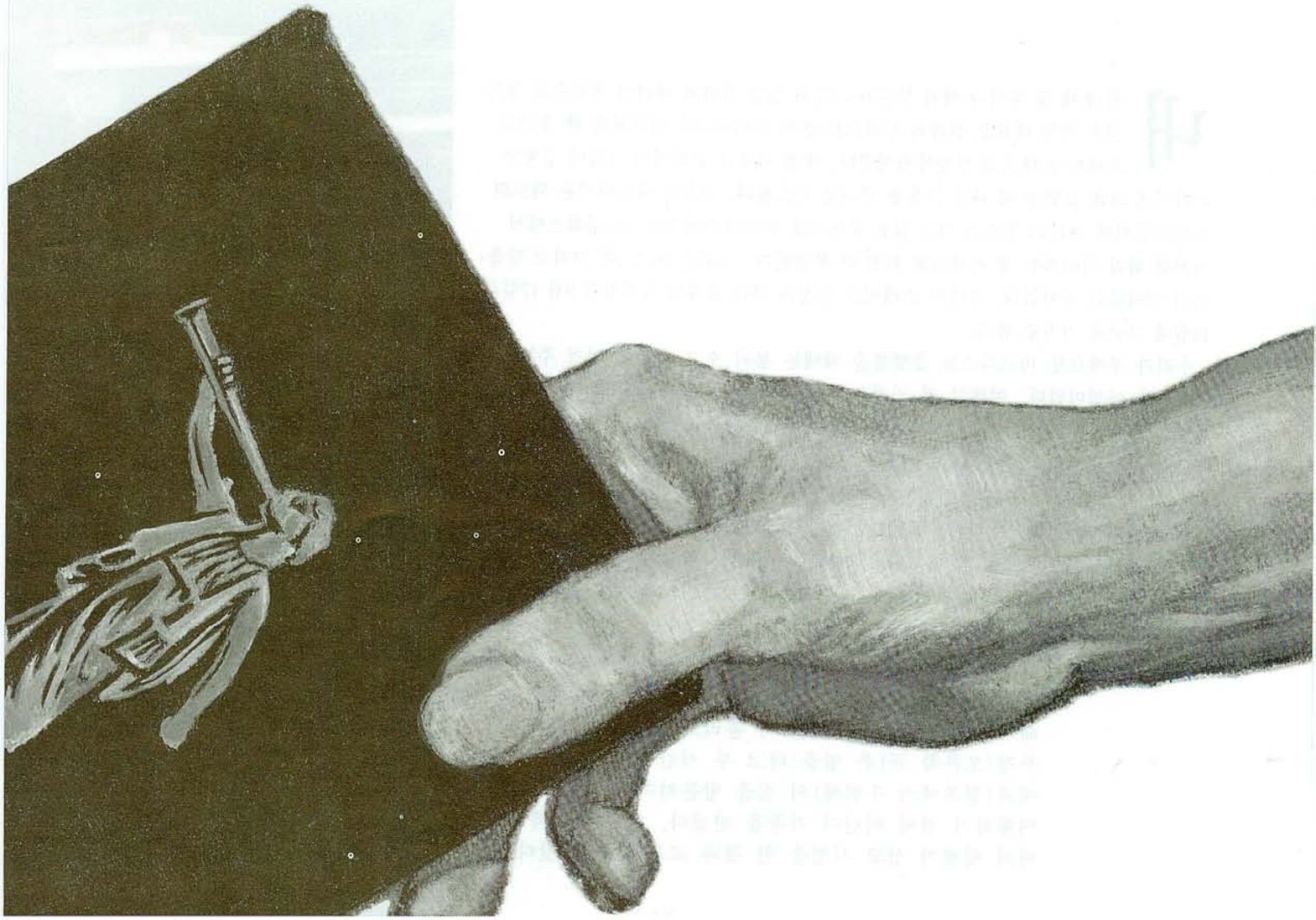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날 아침 열 시 경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양복을 입은 두 젊은이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불러 들였습니다. 그들은 곧 그날 아침 기도를 드리면서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에게 인도해 달라고 간구했을 때 이 지역으로 와야겠다는 영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잘못 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집집마다 여러 번 방문했던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와야겠다는 영감을 받고 왔던 것입니다.

나는 2주 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18년 후에는 남편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지부장단에서 봉사했으며 우리는 성전에서 인봉받았습니다.

나는 방문을 고대하고 있는 사람을 찾기에 충분한 영을 지녔던 선교사들과 물문경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체리 엘 모로우스는 더모인 아이오와 스테이크 낙스빌 지부의 회원이다.



#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베니그노 판토하

칠레의 폰더아구도 산맥 동쪽에 외따로 떨어진 엘카야오  
계곡에는 특별한 말일성도 가족이 살고 있다.

**내** 가 호세 및 후아나 예피 부부와 그들의 일곱 자녀에 대해서 처음으로 들은 것은 지역 대표로 칠레의 푸에르토 몬트 스테이크를 방문했을 때 훌리오 오테이 스테이크 부장에게서였다. 예피 가족과 교회에서 그들이 경험한 이야기에 대해 들었을 때 나는 그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그들은 에스타시온 와드의 회원이었지만 예피의 집으로 가는 길은 푸에르토 바르다스에 있는 그 집회소에서 거리를 따라 걸어가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복잡했다. 그곳은 비스, 배 그리고 말을 타고 가야하는 곳이었다. 오테이 스테이크 부장과 나는 칠레의 국경일인 9월 17일과 18일에 그곳에 가기로 했다.

우리가 푸에르토 바르다스를 출발했을 때에는 봄이 오고 있음을 알려 주는 아름다운 아침이었다. 여행의 첫 과정으로 90분 동안 버스를 타고 토도스 로스 산토스 호숫가에 있는 페트로후아까지 갔다. 우리가 탄 버스는 뒤 편에 화산이었던 오소로노 산을 끼고 안케와 호숫가를 따라 남쪽으로 달렸다. 우리는 토도스 로스 산토스 호수를 건너는 정기선을 탈 계획이었지만 그것은 시간보다 일찍 승객이 찼기 때문에 먼저 떠났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세 시간의 여행을 위해 개인 보트를 세 내었다. 그런데 그 보트는 알고 보니 예피 형제 사촌의 배였다. 그 세 시간 동안 우리는 주변에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였다. 물 빛깔 때문에 “에머랄드 호수”로 알려진 호수는 태양에 반사되어

베니그노 판토하(왼쪽 끝)와 훌리오 오테이 스테이크 부장(오른쪽 끝)은 말을 타고 두 시간 거리인 호세 예피(왼쪽에서 두번째)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여행하기 전에 미란다 가족을 만났다. 미란다 가족은 예피 형제가 선교 사업을 한 결과 교회에 들어 왔다.







반짝였으며 오른쪽으로는 장엄한 몬테 트로나도르 산맥이 솟아 있었다. 그것은 국경일을 경축하는 좋은 방법이었으며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러한 아름다운 나라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드렸다.

우리가 예피 형제와 만나기로 한 곳에 도착하였을 때 그는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그가 관광선이 도착하는 호수의 건너편 다른 끝에 있는 조그만 선착장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오는 동안 우리는 호수 근처에 살고 있는 미란다 가족을 방문하였다. 예피의 처남인 호세 미란다와 그의 가족은 예피 가족이 선교 사업을 한 결과로 교회 회원이 되었다. 그들에 대해서는 후에 더 이야기할 것이다.

드디어 예피 형제가 도착하였으며 레이먼의 후예인 이 사람을 만나자 그의 진지한 미소와 빛나는 눈을 보고 친근함을 느꼈다.

우리는 예피의 집으로 가는 마지막 교통 수단, 즉 말을 타고 두 시간 가량 그 지역에 자라는 울창한 나무숲 사이길로 여행을 했다. 말을 타고 가면서 우리는 신논브라강이 급하게 호수로 흘러 들어 가는 소리를 들었다.

드디어 우리는 완전히 오지인 예피의 가족이 살고 있는 엘카야오 계곡에 도착했다. 우리가 말에서 내리자 아이들이 반갑게 맞이했다. 처음에 나는 그 아이들이 방문객을 보는 것이 흥미로워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곧 그들이 아버지를 보고 기뻐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보지 못한 아버지를 보는 듯이 그를 끌어 안았다. 아버지와 자녀간의 특별한 유대를 보고 나는 후에 예피 형제가 일곱 자녀 가운데 다섯 명을 손수 받아냈음을 알게 되었다.

봄은 예피 가족의 집 밖에 핀 많은 노란 꽃과 함께 높은 산 계곡에도 찾아 왔다. 집 안 부엌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붙어 있었다.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날 저녁 예피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복음 안에서 그들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두 시간 동안 여행한 후 우리가 말에서 내리자 아이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라고 판토하 장로는 말했다. “처음에 나는 그 아이들이 방문객을 보는 것이 흥미로워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그들이 아버지를 보고 기뻐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예피 형제는 그가 교회를 알게 된 경로를 우리에게 말해 주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려서부터 저는 코피 때문에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한빈은 어찌나 코피를 많이 흘렸는지 졸도하여 환각까지 일으켰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저승에 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옆에서 간호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저는 프에르토 바라스에 있는 의사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친구의 집에 있을 때 그는 근처에 살고 있는 두 젊은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좀 고지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축복을 받으면 얼마를 주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흰 와이셔츠 때문에 눈에 띄는 젊은이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에게 축복해 주는 데 돈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는 축복을 받고 낫겠다는 신앙만 있다면 참으로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앉으라고 했지만 저는 앉으면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는 것이 더 편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들의 손을 저의 머리에 얹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몸 전체에 따뜻함을 느꼈으며 그것이 저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임을 아무런 의심없이 믿었습니다. 그후로는 한 번도 코피를 흘린 적이 없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선교사들에게 교회의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결혼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다음 일요일에 아내와 함께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첫번째 토론을 가르쳤으며 다음 주에 두번째 토론을 공부하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거리가 멀어 오기가 어려우니 바로 침례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날, 1979년 9월 28일에 모든 토론을 다 배우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집에서 교회까지는 너무나 멀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자주 교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어느 일요일에 저는 지부장과 접견한 후 아론 신권을 받았습니다.”

당시 예피 형제의 지부장이었던 오테이 지부장은 그에게 십일조를 내고 멜기세덱 신권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권고했다. 접견을 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비가 오는 날 예피 형제는 지부장 앞에 나타나 최초의 십일조인 세 자루의 감자가 밖에 있다고 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이 형제의 충실함은 얼마나 가상한가! 그는 세 자루의 감자를 말과 배와 버스 그리고 마차로 운송하여 교회까지 가져온 것이다.

십일조의 율법에 관해 예피 형제가 하는 간증을 듣는 일은 특별한 경험이 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감독님께 십일조를 가져오기 위해 집을 떠나기 전에 나는 정직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흠뻑했다는 느낌을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피 형제는 십일조의 법에 순종함으로 인해 주님께서 그의 가족에게 큰 축복을 내려 주셨다고 간증했다. 침례받을 당시 그에게는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즉 밭을 가는 데 필요한 소 한 쌍과 말 그리고 몇 마리의 염소와 양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십일조를 바친 후에 그들은 크게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 “현재 우리는 여러 마리의 말과 염소, 양, 그리고 아홉 마리의 젖소가 있어서 그 우유를 아이들에게 충분히 먹이고 또 치즈를 만들어 팔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밭을 가꾸어 수확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니다.”

영원한 가족 관계를 유지한다는 예피 가족의 목표의 일환으로 그들은 친척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예피의 부친인 푸르텐시오 예피 칼부칸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최초의 친척이었다. 다음은 그의 형제인 세군도 푸르텐시오 예피 아길라와 그의 아내인 마리아 이사벨 데 예피, 그리고 그들의 딸 가운데 한 명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 다음 우리가 호숫가에서 만났던 그의 처남인 호세 놀베르토 미란다 디아스와 그의 아내 마리아 프란시스카 데 미란다, 그의 큰 아들 후안 에리베르토 미란다 예피 그리고 두 어린 딸들이 더 배우기를 원했다.

예피 형제는 그들에게 선교사 토론을 모두 가르쳤다. 그런 다음 그들은 모두 복음 선교사에게 접견을 받기 위해 푸에르토 바라스까지 여행을 했다. 접견을 한 후 예피 형제는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그는 또 그들에게 자신과 예피 자매가 이미 받은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도록 권고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 미란다 가족의 큰 아들은 칠레 비나 델 마르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다.)

우리가 방문한 둘째날인 일요일에 오테이 지부장은 예피 형제에게 가족이 십일조를 내기 위해 푸에르타 바라스로 여행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정에서 정규적인 교회 모임을 갖도록 승인하였다.

우리는 예피의 가족과 친척이 갖는 주일학교와 성찬식에 참석했다. 모두 열 여덟 명이었다. 예피 형제는 모로나이서에서 공과를 가르쳤다. 그가 6장과 7장에서

침례에 관한 말씀을 읽으며 성신의 권세로 설교할 때 우리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공과가 끝났을 때 우리는 찬송가를 불렀다. 피아노나 음악에 관한 지식도 없었지만 예피의 가족은 음이 틀리지 않게 노래를 잘 불렀다. 그런 다음 예피의 가족은 방문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부탁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입니다만 여러분이 저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보다는 제가 이 방문을 통해 여러분에게서 배운 것이 더 많다고 확신합니다.”

그날 오후 예피 가족에게 작별을 고하면서 나는 그들에게서 배운 교훈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충실하는 것에 대해 배웠다. 예피의 가족은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기는 했지만 그들과 주님 사이에는 아무런 거리도 없었다. 우리 가운데에는 주변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예피의 가족은 복음을 가르치고 우정 증진을 하고 가까운 이웃과 친척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예피의 가족에게서 나는 성전을 첫번째 우선 순위로 정하는 것을 배웠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 예피의 가족은 성전에서 인봉을 받기 위해 이미 산티아고에까지 먼 여행을 했다. 언제든 그들이 그 도시까지 여행을 할 수 있을 때면 성전은 그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었다.

나는 복음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강화하고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결심과 함께 아름다운 엘카야오 계곡을 떠났다. 예피 가족의 훌륭한 영향은 산속에 격리되어 있는 그들의 가정 저편까지 멀리 전파되었다.\*

베니그노 판토하 장로는 칠레 남부 지역의 지역 대표이다. 그는 칠레 라 플로리다 산티아고 스테이크 라 플로리다 제2와드에 살고 있다.

예피 형제와 그의 아내 후아나는 예배당이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스테이크 부장의 승인을 받아 가정에서 교회 모임을 갖게 되었다. 예피 가족의 친척 중 많은 사람이 침례 받았으며 예피 가정에서 갖는 예배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마투루레 가족에게  
레이크 장로와 자매는  
권능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였습니다.

레이크 부부가 유타에 있는  
집을 떠나기 전에는 머나먼  
짐바브웨에서 그러한  
홀륭한 경험을 할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S. Smart

좋은 것을 더욱 훌륭한 것과 바꿈

# 부부 선교사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봉사할 수 있는 부부에게 지금이 바로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를 듣고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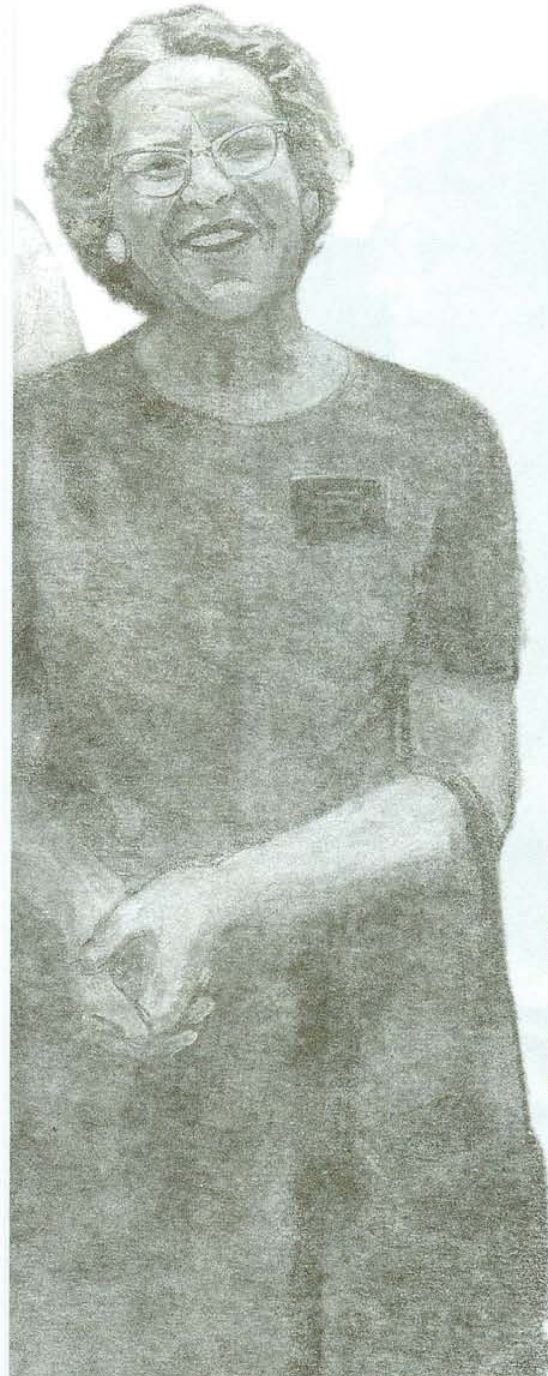
**나**는 최근에 짐바브웨에 있는 사바드시바나 마투루레라는 사람이 경험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반적인 아프리카인의 오두막”인 슈루구에에서 태어난 그는 열한번째 자녀 가운데 일곱번째 자녀였습니다. 그의 세 누이처럼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절름발이였습니다. 어려서 그는 자신의 불구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했으며 그의 부모들이 다니는 교회에 참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일곱 살이 되었을 때 그는 누이들과 함께 장애자들을 위한 학교에 다니기 위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도 일 년에 한 번 밖에 찾아가 볼 수 없게 된 그는 더욱 비판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인생이 비참했으며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의 비판적인 태도는 그의 유일한 두 친한 사람, 즉 어머니와 학교에서 사귀는 불구의 어린이가 죽자 더욱 심해졌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정말로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빛이라고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불공평하고 경배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친구를 사귀고 그들에게서 성경을 읽으라는 권고를 받은 뒤 그의 마음은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일자리를 얻고 결혼을 하고 두 딸을 두었습니다.

1985년 7월에 “정직하고 겸손하고 인자해보이는” 사람이 그의 집에 찾아와 자신을 보이드 레이크 장로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유타주 오크리 출신의 부부 선교사인 레이크 부부는 직장에서 사바드의 아내인 수잔을 만났으며 그녀는 그들에게 남편을 방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바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면 우리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레이크 부부 선교사가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가 너무나 듣기



좋았으므로 마투루레 부부는 레이크 부부 선교사가 장애자들이 모여 일하는 장애자 센터에서 그들의 모든 친구를 만나게 했습니다. 사바드와 수잔은 물론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로부터 여러 번 방문을 받은 뒤 사바드는 병이 났습니다. 그러나 신권의 축복은 그가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신권의 권세와 가정의 밤, 금식, 헌금, 십일조 및 순결에 관한 가르침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영원한 가족에 대해서도 배웠으며 우리가 믿고 합당할 경우 우리는 성전에서 결혼을 하고 영원히 남편과 아내로서 또한 가족으로서 인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1986년 8월 2일에 사바드는 지부장에 의해 침례를 받고 레이크 장로는 수잔과 그들의 딸 한 명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회복해 주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우리 가족이 받은 기쁨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라고 사바드는 말합니다. 3주 후에 세째 딸인 헬렌 해피니스가 태어났습니다. (가족들은 레이크 자매에게 경의를 표하여 그녀의 이름인 헬렌을 따서 아기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투루레 가족에게 레이크 장로와 자매는 권능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였습니다. 레이크 부부가 유타에 있는 집을 떠나기 전에는 머나먼 짐바브웨에서 그러한 훌륭한 경험을 할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세계에서 봉사하고 있는 부부 선교사들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이와 비슷한 축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훌륭한 결과는 그 축복이 봉사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선교부의 선교부장으로 있을 때 나는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부부 선교사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은퇴 후의 안락한 계획을 제쳐놓고 선교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선교 지역에서는 멋진 변화가 시작됩니다. 주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과 신뢰, 사업에 참여하는 열의, 아낌없이 주는 마음을 보면서 나는 마치 꽃봉오리가 활짝 피는 것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이 훌륭한 부부들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을 선교 지역에서 더욱 훌륭한 것과 바꾸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와 함께 캐나다 선교부에서 봉사했고 현재는 영국 런던 남 선교부에서 세번째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베를 에이시 부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싶느냐고 물었을 때 에이시 장로는 다음과 같은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봉사하려고 노력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서는 하늘의 창을 열어줄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첫번째 부름을 받기 전에는 건강이 좋지 못해 때로는 일을 하지 못하고 여러 날 집에서 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교사의 부름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므로 부름을 받은 뒤 이 년 동안 미국 북서부에서 예배당 건축을 관리하였습니다. 다행히 저는 선교 사업을 통해 건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우리는 18개월 동안 복음 선교사로 또 부름을 받아 캐나다 토론토 선교부로 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영적인 경험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보낸 두 번의 겨울은 생애에서 가장 추운 겨울이었지만 저는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가정에 남아 있는 가족들과 편지 왕래로 더욱 가까워졌으며 가족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몇 배나 커졌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18개월 동안 봉사한 결과로 얻게 된 많은 축복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좋은 건강, 더욱 단합된 가족 관계, 복음 안에서 알게 된 많은 형제 자매, 그리고 주님의 포도원 한 조그만 모퉁이에서 사업을 돕는 가운데 얻은 수많은 영적인 경험들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부름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영국입니다. 우리는 구세주의 재림에 대비하여 세상을 준비시키는 데 도움을 줄 더 많은 부부 선교사가 매우 필요함을 느낍니다.”

나는 이 부부가 영국에서 훌륭한 선교 사업을 하리라 확신합니다. 에이시 부부가 캐나다로 선교 사업을 온 첫날, 그들과 접견하면서 소개를 하는 동안 에이시 자매는 복음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이 떨리고 긴장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란 사람들에게 교회에 관해서 말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선교사로서 일하는 첫째날, 남편이 한 가게에서 식료품을 사고난 후 돈을 지불하는 동안 에이시 자매는 계산대에 앉아있는 여자에게 교회에 대해 아는지, 또 더 알고 싶은지 물어 보았습니다. 그 질문의 결과로 베티 더블류 길드라는 여인이 남편과 두 명의 친척과 더불어 침례를 받았으며 적어도 열 일곱 명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 부부가 가족과 가정의 편안함을 버리고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 세번째로 떠난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마태복음 19:29)

다음은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다음 대답은 부부 선교 사업에 관해 이해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부 선교사인가? 집에 돌보아야 할 자녀가 없는 연로한 부부로서 건강하며 선교 지역에서 사용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부 선교사는 얼마 동안 봉사하는가? 부부 선교사는 보통 18개월 동안 봉사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12개월 또는 6개월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6개월간의 부름은 농업과 같은 계절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기간의 선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곳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봉사하게 됩니다. 18개월간 봉사하는 부부는 타국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일하는 첫째날, 에이시 자매는 한 가게 점원에게 교회에 대해 아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한 부부와 두 명의 친척이 침례받았으며 적어도 열 일곱 명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한 번의 선교 사업을 마치고 난 부부는 대부분 다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랄프와 일린 테이트 부부는 현재 네번째 선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토론토, 나이지리아 및 아일랜드(같은 선교 기간에), 그리고 카리브해 여러 섬에서 봉사했습니다. 현재는 뉴질랜드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선교부에서 사람들이 침례받는 것을 보았으며 그들이 행한 지도자 훈련은 매우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선교사의 부름을 구하는 것은 주께는 일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는 자신을 선교사로 부를 수 없습니다. 부름은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독에게 찾아가서 봉사할 뜻이 있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토론을 외워야 하는가? 현재 토론을 사용하는 선교사에게 토론을 외우도록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개요를 파악하여 가르치면 됩니다. 부부 선교사는 토론의 개요를 파악하여 가르칠 때 간단히 참고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외우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은 영과 구도자의 느낌에 더욱 민감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덜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복음을 배우고 생활해 왔으므로 개인적인 독특하고 훌륭한 경험들을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여러분은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교 기간 동안 복음을 가르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 주실 것입니다.

부부 선교사에게 연령 제한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연령 제한은 70세입니다. 그러나 칠십이 넘었다더라도 건강이 좋다면 스테이크 부장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 문제에 관해서 부부 선교사는 일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대부분의 부부는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도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선교부장은 특별한 상황을 고려할 것이며 여러분의 경험과 선교부의 필요에 따라 임무를 부여할 것입니다.

젊은 선교사들처럼 전도하는 신체적인 활동을 견디어 낼 수 있는가? 그 점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일하게 될 것이며 다른 선교사들과 똑같은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을 사귄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으며 그들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봉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은 보조 조직에서 가르치거나 담장을 짓거나 지역

지도자를 훈련하고 과일과 야채를 저장하며 구도자 또는 새로운 회원과 우정 증진을 하고 울타리를 수리하며 활동이 저조한 회원의 활동을 촉진하고, 채소를 심고 정원을 가꾸는 방법을 가르치며, 복음을 가르치고 사랑하고 경청하며 합창단에서 노래하고, 페인트칠을 하고 침례를 베풀며 잡초를 뽑는 등 무엇이든 충실하고 사랑에 찬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부부 선교사는 영의 인도를 받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를 주님과 그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부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인가? 부부 선교사는 가끔 지역 교회의 지도자나 회원들이 선교사들의 경험, 성숙함 및 지도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에 지명되기도 합니다. 부부 선교사는 그들이



지부나 와드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강화시켜 줍니다. 제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 선교사들은 교회가 회원들을 위해 보여 주어야 할 모범을 보여 줍니다.”

선교부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훌륭한 신앙의 모범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평생 봉사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부부가 필요한가? 어떤 사람이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께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부부가 필요합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세계에서 선교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과거 어느 때보다 현재 더욱 주님의 사업에 종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군이 적으니’(누가복음 10:2)”(성도의 벗,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 1984년 7월호, 69페이지)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스테이크에는 선교사의 부름을 받아들일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성적이기도 하며 급성장하고 있는 지역의 새로운 회원을 강화하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현재도 새로 침례받은 수천 명의 회원들이 다소 생소하고 낯선 마음가짐으로 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안일하게 앉아계시는 분들이 이들을 격려하고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이 있고 잘 준비된 부부를 선교사로 내보내 그들의 생에서 가장 위대한 경험을 쌓게 한다면...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성도의 벗, “내 양을 먹이라”, 1979년 10월호, 93~94페이지)

어느 곳에 있는 선교부든 더 많은 부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성숙함과 경험 덕분에 그들은 가장 훌륭한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일생 동안 얻게 된 특별한 기술, 충실한 봉사 및 헌신적인 자세는 지역 지도자를 효과적으로 교육시키고, 회원을 재활동시키고 강화하며, 비회원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침례를 줌으로써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옵니다. 그들이 행하는 사업의 중요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봉사할 수 있는 부부에게 지금이 바로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낯을 들고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것보다 더 큰 사랑과 성취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선교 사업은 희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희생은 하늘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찬송가, 18장 참조) 사실 가정과 가족과 편안함을 희생하는 것은 좋은 것을 희생하여 더욱 훌륭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



# 복음을 전하는 간단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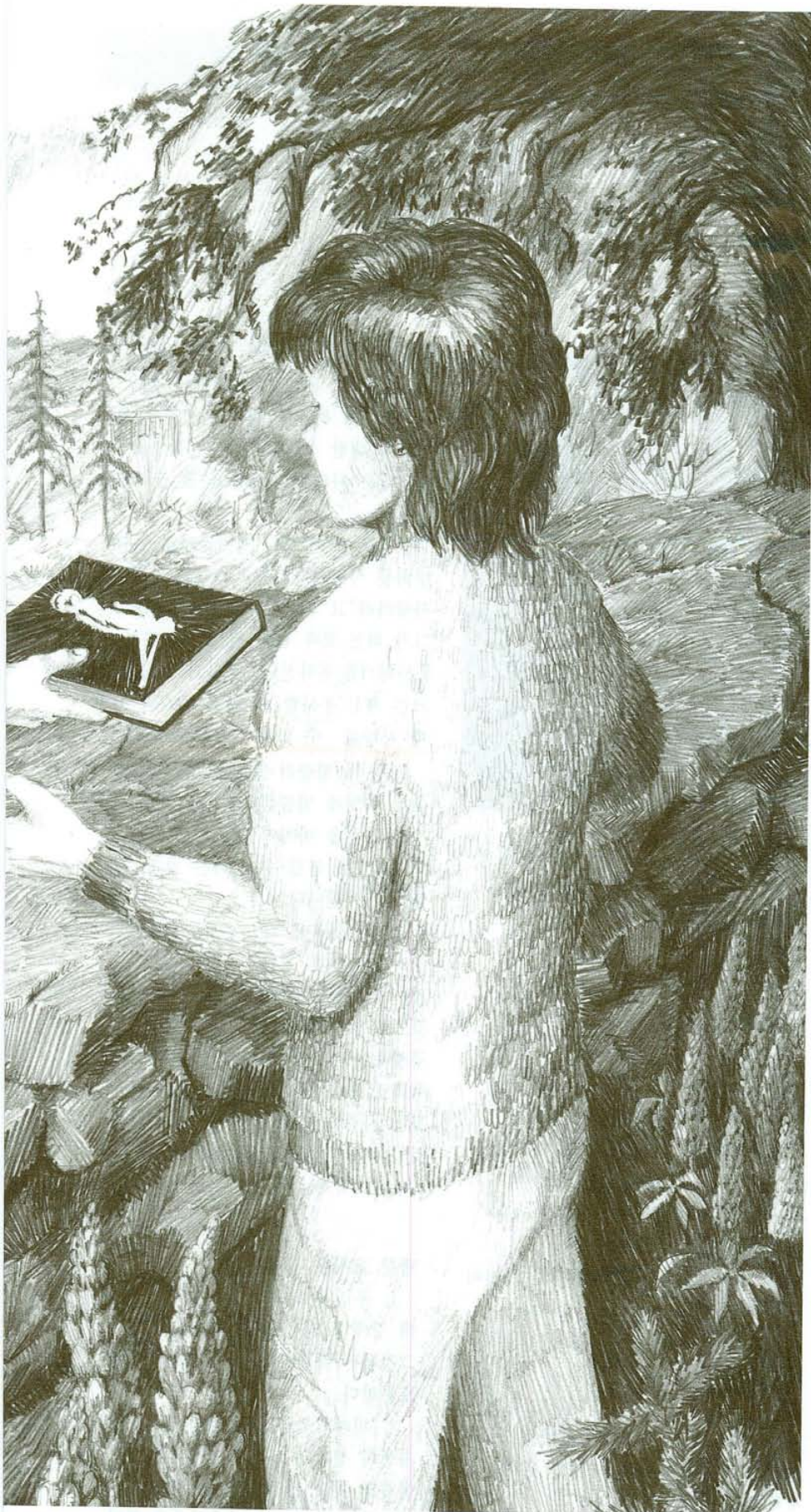


티모드 에퍼드 삽화

1. 스스로 복음을 공부한다. 기도하고 영을 구하며 교회에 대한 간증과 지식을 강화하여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 친구를 사귈다.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된다. 여러 부류의 사람과 만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활동에 참여한다.
3. 친구를 교회와 관련된 활동에 초대한다. 분위기가 따뜻하고 친절하게 될 것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계획한다.
4. 교회에 대한 그들의 질문에 솔직하고 쉽게 대답해 준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기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대답은 정확하고 진지하게 한다.
5. 새로운 친구나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에게 줄 물몬경을 갖고 다닌다.
6. 주일학교, 상호부조회, 신권회 및 반에서 배운 흥미있는 주제를 전한다.
7. 여러분이 가족 역사의 한 부분으로 수집한 내용을 말해 준다.

8. 영적인 깨우침에 도움이 되는 교회 모임에 그들을 초대한다. 그들이 경험하는 훌륭하고 따뜻한 느낌은 영에 의한 것임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9. 자신의 간증을 전할 적절한 때와 장소를 찾도록 한다. 그들에게 복음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며, 그들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지를 말해 준다. 그들에게 복음 선교사의 토론을 듣도록 권유한다.
10. 그들이 흥미가 없다고 말하더라도 실망하지 않도록 한다.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은 친구로서의 역할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오직 구도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을 것이다. 아마 그들의 생애에서 언젠가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몰몬경을  
여분으로 갖고 다니면서  
기회가 있을 때 주는  
것이다.

교회에서 그들과 가졌던 경험과 우정은  
그들 마음에 강한 인상을 남길 것이다.

11. 그들이 교회에 가도록 도와  
준다. 필요하다면 함께 차를 타고  
간다. 그들이 진행되어 가는 상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며 곁에 항상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앉아 있는지  
확인한다.

12. 그들이 성도의 벗을 정기  
구독하게 해 주거나 여러분의 성도의  
벗을 빌려 줄 수도 있다.

13. 항상 훌륭한 모범을 보인다.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이 표준에  
따라 생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14.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한  
명의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훌륭한 느낌은  
거절을 한 번 당한 것을 보상하고도  
남는다. \*

# 봉사를 통해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 : 40)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미스키 가족은 이웃에 의해 일찍 잠에서 깨어났다. 연로한 환자들이 열 여섯 명 있는 인근 요양원에서 물펌프가 고장이 났다. 미스키 가족은 하루 종일 그들과 물을 나누어 써서 저녁에는 우물의 물이 바닥이 났다. 미스키 자매는 우물의 물이 동이 나자 4리터들이 정수 열 열덥 통을 샀으며 다른 말일성도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은 열 여섯 개의 커다란 물통을 구해다가 그 지역에 있는 집회소에서 물을 길어다 그 통에 채웠다. 세 명의 자매가 환자들의 필요한 세탁물을 빨아 주었으며 다른 한 자매는 아홉 시간 동안이나 시트를 빨아 말렸다.

3일 동안이나 미스키 자매는 눈이 내리는 날씨에, 때로는 영도 가까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물을 길어 날랐다. 3일이 지나서 요양원에는 새로운 펌프가 설치되었으며 모든 일은 정상으로 되돌아 갔다.

그러나 미스키 가족에게 있어서는 정상이 아니었다. 그들의 우물은 말라버린 채로 있었다. 요양원 종사자들은 미스키 가족을 돕는 일이 무척 기뻐다. 요양원에서는 다시 봄이 와서 우물 물이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 그 가족에게 물을 대 주었다.

구세주께서는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봉사의 규모가 크든 작든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질 때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진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마태복음 22 : 36~39 참조) 이 “두 가지 큰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 편한 일만은 아니다. 어떤 형태의 봉사는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미리 계획하고 지명해서 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즉시, 망설임 시간도 없이 해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오랫동안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미리 계획할 수가 없을 것이다.

거창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봉사가 아니다. 우리는 매일 가족, 친구, 이웃, 동료, 심지어는 낯선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든 자녀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감성을 나타내는 사려깊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은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다. 주님은 우리도 그가 하신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기를 원하신다. 봉사의 규모가 크든 작든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질 때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진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은 봉사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들은 특히 자기 자신을 바치지 않고서는 진실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봉사를 한다면 우리의 나날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차게 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 생애는 우리 주님이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또 우리로 인하여 생활에 감동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도록 헌납될 것입니다.”(성도의 벗, 1987년 8월호, 5~6페이지)\*

## 방문 교사를 위한 제언

1.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봉사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본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2. 비이기적인 봉사 행위가 어떻게 자신의 생활과 다른 사람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 왔는지 이야기하거나 방문하는 자매에게 이야기하게 한다.

# 지금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할 때 자주 사용하게 될 몇 가지 기술은 지금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이 기술들은 선교 사업을 할 때 매우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나중에 배우겠다고 해서 안된다.

말씀 지명을 받아들임. 와드에서 말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지명을 받아들여 훌륭한 말씀을 준비하는 방법을 배운다.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말씀을 해야 할 기회가 많을 것이다.

외우는 훈련을 함. 성장하면서 외우는 방법을 배워 두면 토론과 성구를 공부하게 될 때 많은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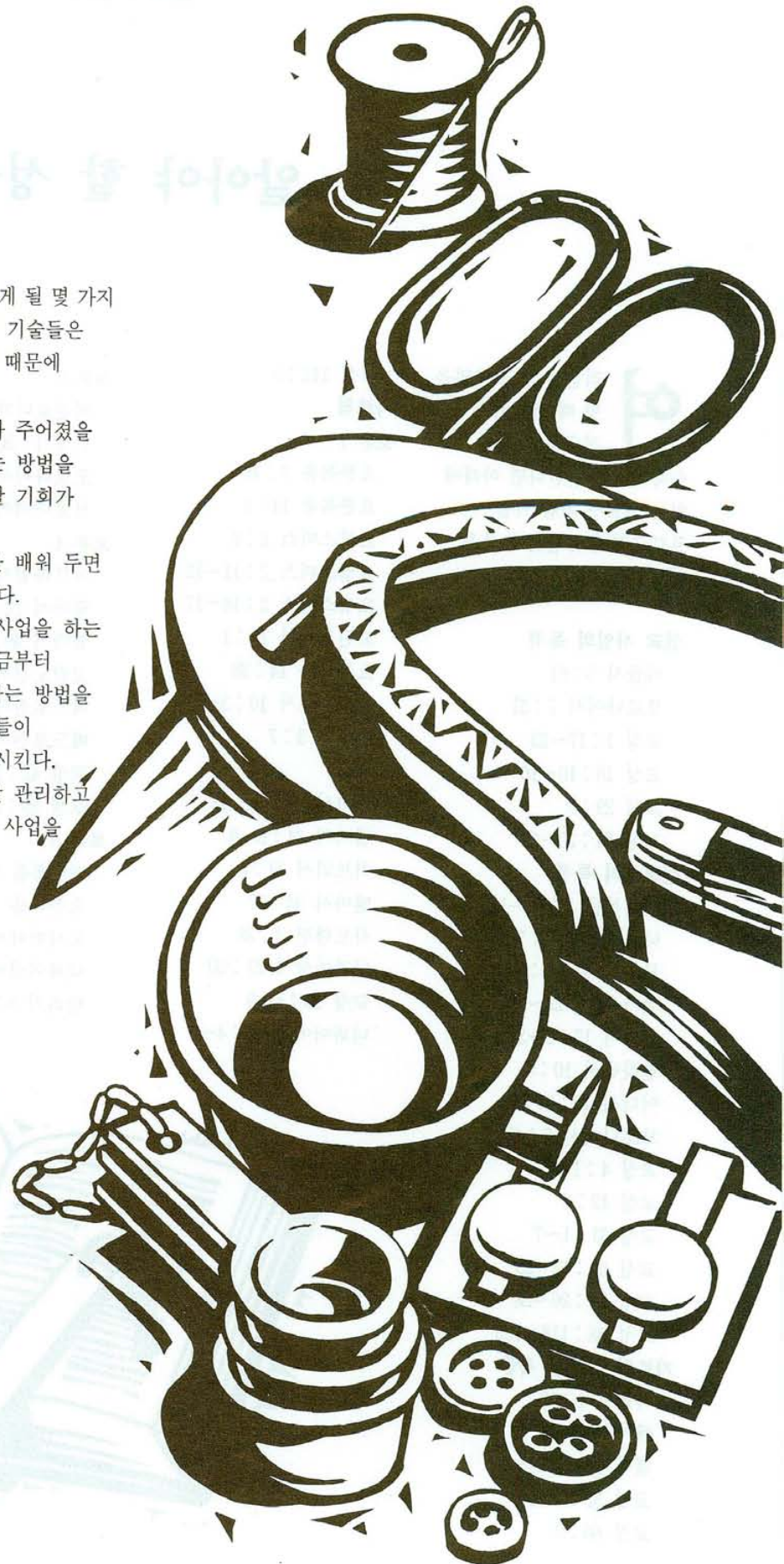
사람을 공손하게 대하는 방법을 배움.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된다. 지금부터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정중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방법을 배운다. 새로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환대받는다느 느낌을 갖도록 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요리 및 세탁 방법을 배움. 자신의 의복을 잘 관리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 줄 알고 있으면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생활이 훨씬 쉬워질 것이다.

색다른 음식에 익숙해짐. 새롭고 이색적인 음식을 먹도록 한다.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여러분은 전혀 색다른 음식들을 먹어야 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

외국어를 배움. 외국어를 배워 두면 항상 유용하며 선교 사업을 할 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지명될 경우에도 여러분은 어쩌면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에게 봉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여러분의 언어 능력은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피아노 연습을 계속함. 피아노 교습을 받게 될 기회가 있는 경우 어렵지 않게 찬송가를 연주할 정도가 될 때까지 중단하지 않도록 한다. 이 재능은 여러분이 봉사하게 될 사람들에게 크게 환영받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알아야 할 성구

**여** 러분이 선교 사업을 할 때 필요하게 될 성구를 완전히

습득하기를 원한다면 아래에 있는 선교사 복음 학습 프로그램에 제언된 목록을 참조한다.

## 선교 사업의 목적

- 야곱서 5 : 61
- 모로나이서 7 : 31
- 교성 1 : 17~23
- 교성 18 : 10~16
- 교성 29 : 7
- 교성 84 : 20~22

## 선교사의 특성

- 마태복음 5 : 14~16
- 니파이일서 3 : 7
- 모사이야서 3 : 19
- 엘마서 7 : 23~24
- 엘마서 17 : 2~3
- 힐라맨서 10 : 4
- 이더서 12 : 27
- 모로나이서 7 : 45~48
- 교성 4 : 1~7
- 교성 12 : 8
- 교성 31 : 1~7
- 교성 50 : 13~29
- 교성 58 : 26~28
- 교성 88 : 118~126

## 가르칠 사람을 찾음

- 야곱서 1 : 19
- 엘마서 8 : 10
- 엘마서 26 : 29~30
- 교성 33 : 8~11
- 교성 60 : 2

교성 112 : 5

## 가르침

### 토론 1

- 요한복음 3 : 16
- 요한복음 14 : 6
- 요셉스미스 2 : 8
- 요셉스미스 2 : 11~12
- 요셉스미스 2 : 16~17
- 고린도후서 13 : 1
- 요한복음 14 : 26
- 모로나이서 10 : 3~5
- 아모스 3 : 7

### 토론 2

- 엘마서 11 : 42~43
- 엘마서 34 : 8~9
- 히브리서 11 : 6
- 엘마서 34 : 17
- 사도행전 2 : 38
- 니파이삼서 27 : 20
- 교성 82 : 8~9
- 니파이이서 31 : 4~7

### 토론 3

- 테살로니가후서 2 : 1~3
- 교성 1 : 30
- 모로나이서 6 : 2~4
- 모로나이서 6 : 5~6

### 토론 4

- 아브라함서 3 : 22~25
- 엘마서 12 : 24
- 엘마서 40 : 11
- 고린도전서 15 : 40~42
- 베드로전서 3 : 18~19
- 베드로전서 4 : 6
- 교성 42 : 22~25
- 교성 89 : 18~21

### 토론 5

- 마태복음 22 : 37~39
- 요한복음 14 : 15
- 모사이야서 2 : 17
- 니파이삼서 13 : 33
- 말라기 3 : 8~11

누가복음 21 : 1~4  
열왕기상 17 : 8~16

### 토론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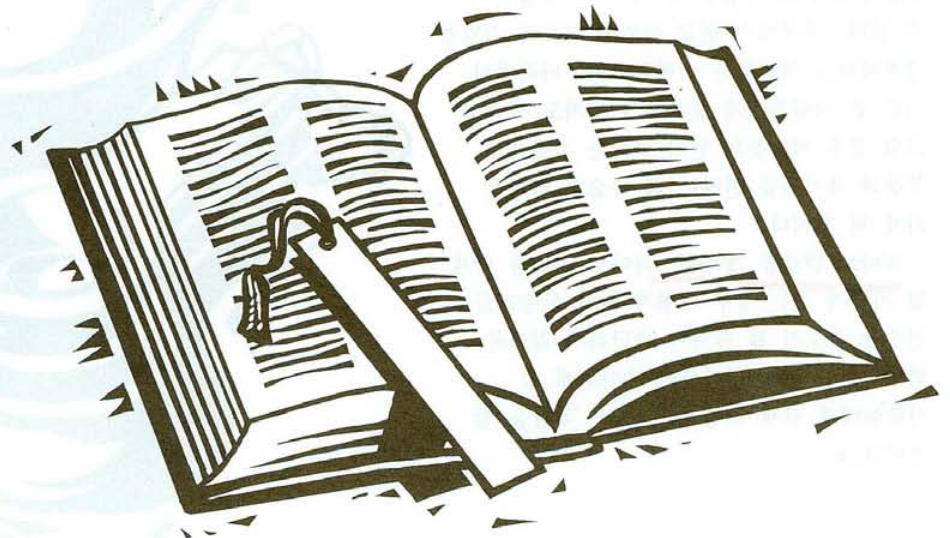
- 모사이야서 3 : 8
- 요한복음 14 : 6
- 모세서 1 : 39
- 에베소서 4 : 11~12
- 교성 88 : 81
- 니파이이서 31 : 17~21

## 침례 및 우정 증진

- 요한복음 3 : 2~5
- 모사이야서 18 : 8~10
- 교성 20 : 37
- 교성 20 : 71~74

## 지도력

- 출애굽기 18 : 13~26
- 마태복음 20 : 26~27
- 엘마서 48 : 11~13, 17
- 교성 107 : 99~100
- 교성 121 : 34~46 \*





## 어떻게 선교사 부름을 받는가?

### 복장과 몸차림

**선** 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복장은 주님의 대표자에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의 외모가 여러분이 하는 말을 강화시켜야 하며 약화시켜는 안된다. 합당한 복장과 몸차림은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존경과 신임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선교사는 검소한 복장을 해야 한다. 선교부장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복음을 전도하거나 모든 모임에 참석할 때 수수한 색깔의 양복을 입는다. 자매도 수수한 색깔의 옷을 입는다. 스커트와 원피스는 무릎을 덮어야 한다. 바지와 바닥에 끌리는 스커트와 원피스는 합당하지 않다.

2. 장로들은 머리카락이 양복깃과 귀를 덮지 않도록 머리를 깎아야 한다. 뽀뽀깎거나 더빅머리 스타일은 용납되지 않는다. 장로들은 콧수염과 턱수염을 길러서는 안되며 구레나룻은 귀의 중간 이하로 내려오면 안된다. 자매들은 수수하고 손질하기 쉬운 머리 스타일을 선택해야 한다. 선교사는 머리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언제나 단정하게 빗어야 한다.

3. 선교사는 모든 면에서 단정하고 깨끗해야 한다.\*

**선** 교사의 부름을 받기 위해 여러분은 감독이나 지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은 그에게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은 소망을 알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자신을 추천할 수는 없다.

여러분이 감독이나 지부장과 함께 접견하게 되면 그는 여러분이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당성과 능력을 판단하게 된다. 그가 여러분을 추천하게 되면 여러분은 선교사 추천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한 뒤 감독 또는 지부장이 서명을 한다.

감독은 여러분에게 선교사 건강 및 구강 평가 기록서를 준다. 건강에 관한 부분 중 일부는 여러분이 작성하고 일부는 의사가 작성하여 감독에게 돌려 준다. 구강 평가 기록서는 치과 의사가 작성하여 감독에게 돌려 준다.

선교사 구강 및 평가 기록서에 선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여러분은 스테이크 부장이나 지방부장에게 가서 접견을 받게 된다. 그때 선교사 추천서와 선교사 구강 및 평가 기록서를 가지고 간다. 추천서에 붙일 두 장의 사진이 필요하다. 이 사진은 선교사에게 합당한 복장을 하고 찍어야 한다. 스테이크 부장이 감독의 의견에 동의하게 되면 그는 선교사 추천서에 서명을 하여 선교사 구강 및 평가 기록서와 함께 그것을 최종 결정을 받기 위해 선교사과로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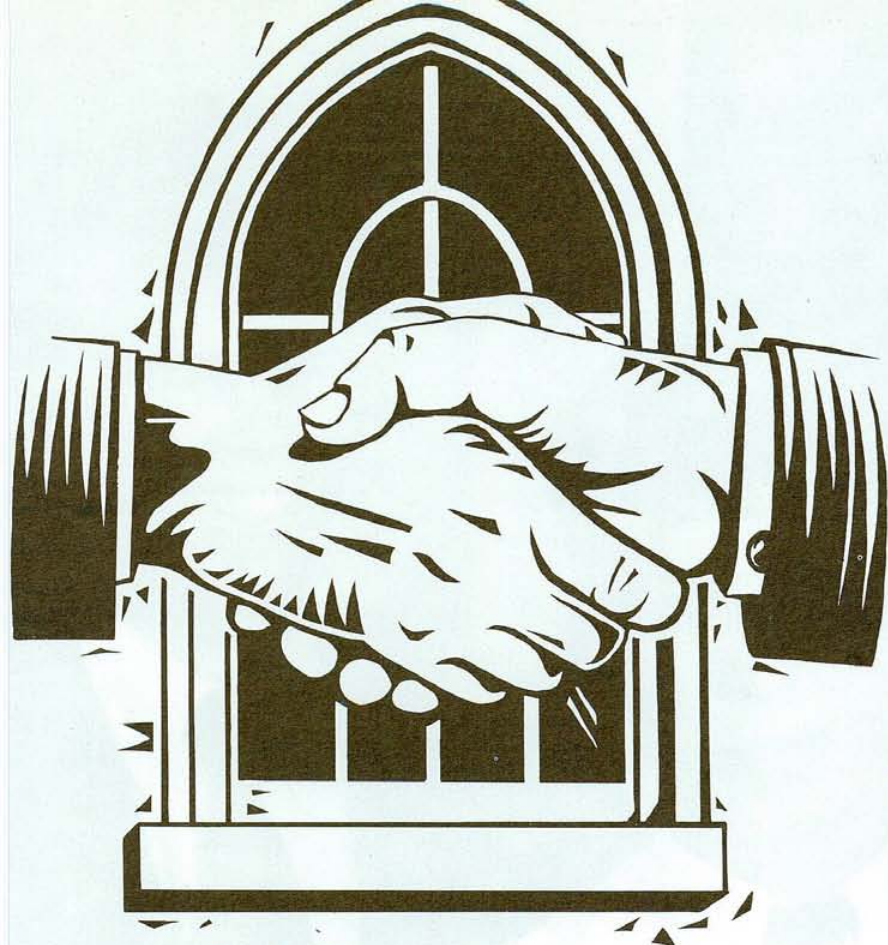
## 지참물

**우**리는 몇 명의 귀환 선교사에게 그들이 선교사로 떠날 때 가지고 가서 유용하게 사용했던 물건들과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웠던 거들에 대해 물어 봤다. 다음 품목들은 선교사 부름을 받게 될 때 여러분이 받게 되는 지참물 목록에는 없을지 모르지만 짐을 꾸릴 때 가지고 가면 유용할 것이다.

1. 빨랫줄과 빨래 집게
2. 계량 컵 및 계량 스푼. 이 기본 요리 기구들은 필요로 할 때 찾으면 대개 없는 물건들이다.
3. 잘 알고 있는 조리법. 여러분은 자신과 동반자를 위해 요리를 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가 하셨던 요리법을 그대로 기억하고 싶어할 것이다. (그런데 대개의 국가에서는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계량법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는 선교 지역에 부름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4. 여러분이 가지고 가는 옷에 맞는 여분의 단추
5. 한쪽에는 갈고리가, 다른 한쪽에는 동그란 쇠가 달린 끈 그 용도에 놀랄 것이다.
6. 고무 샌들
7. 여러분이 사용하는 구두나 의복이 보통의 크기보다 작거나 클 경우에 여벌로 준비한다.
8.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구두 위에 신는 고무 덧신을 준비한다.
9. 자매들은 스타킹의 크기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될 경우 여분의 스타킹이 많이 필요하다.
10. 여분의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11. 비상 약품
12. 휴대용 바늘 및 실
13. 가위 및 주머니칼 \*





## 교회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함

**선** 교사에게는 교회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몇 가지 고려해 보아야 할 점을 제시해 본다.

1. 밝은 미소를 짓고 회원과 구도자에게 친절하게 인사한다.
2. 건물내의 복잡한 곳에서는 더욱 조용히 말하고 조심스럽게 걷는다.
3. 소란스러운 행동을 피한다.
4. 모든 모임에 늦지 않게 참석한다. 모임이 시작되기 5분 전에 참석한다.
5. 교회 모임 도중 빛으로 머리를 빗거나 손톱을 깎지 않는다.
6. 예배 중에 무엇을 먹거나 껌을 씹거나 이쑤시개를 사용하지 않는다.
7. 모든 찬송을 함께 부른다.
8. 말쑤를 조용히 주의 깊게 듣는다. 잠을 자거나 지루한 듯이 행동하지 않는다.
9. 예배당에서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돕고 방해가 되지 않게 한다.
10. 기도가 끝나면 함께 “아멘”하고 큰 소리로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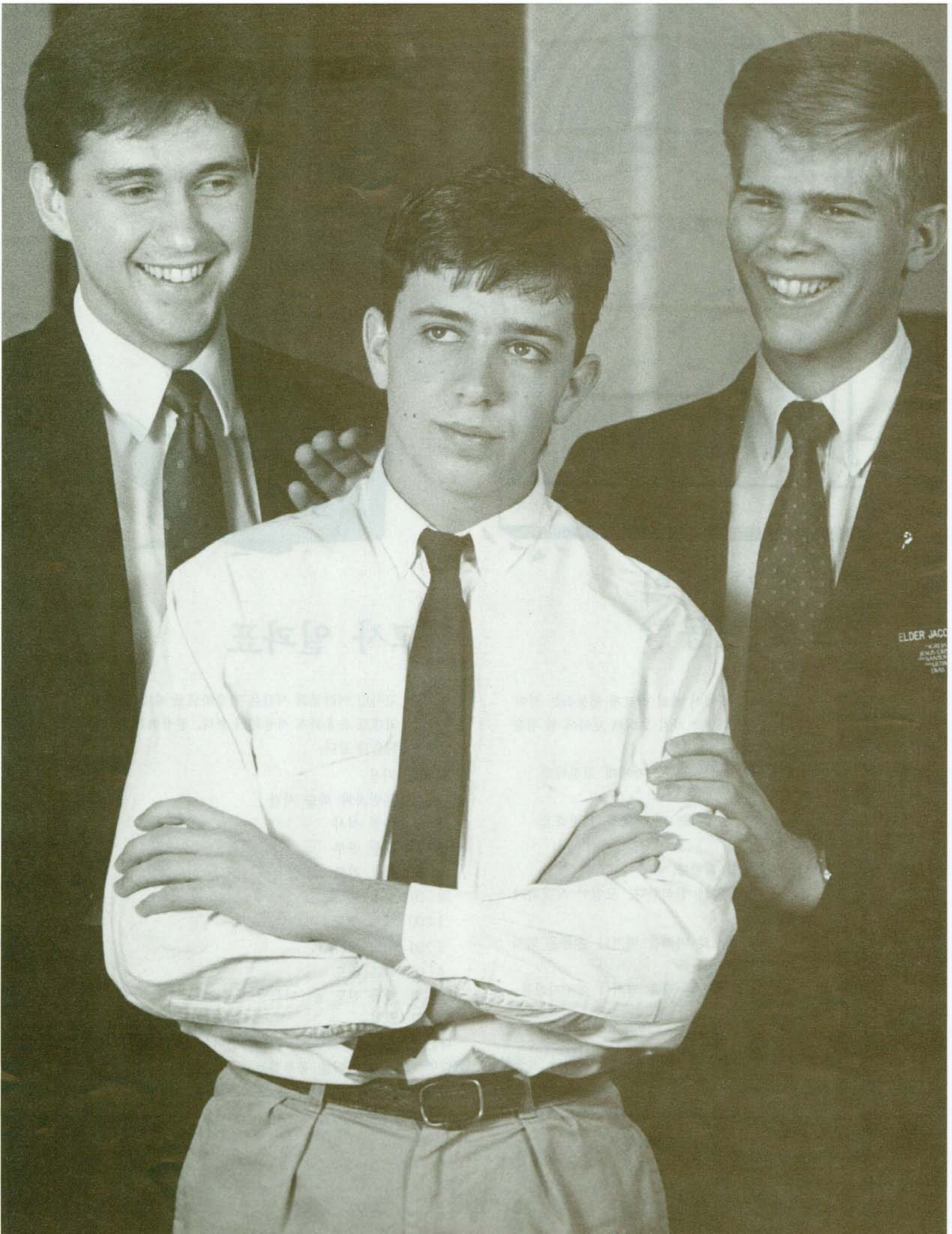


## 선교사 일과표

**선** 교사인 여러분의 시간은 귀중하므로 매일 매일을 최대한으로 유용하게 사용해야 한다. 권장하는 일과표는 다음과 같다.

- 6:30 기상
- 7:00 동반자와 학습 시간
- 8:00 아침 식사
- 8:30 개인 공부
- 9:30 복음 전도
- 12:00 점심
- 1:00 복음 전도
- 5:00 저녁 식사
- 6:00 복음 전도
- 9:30 복음 전도 끝, 다음날 활동 계획
- 10:30 취침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언어를 배우며 봉사하고 있다면 매일 그 언어를 공부하는 데 시간을 사용한다. 또한 일기를 쓰고 규칙적인 운동을 위한 시간표도 짚는다.\*



ELDER JACOB  
1940-41  
1941-42  
1942-43  
1943-44



# 저도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수줍음이 많고 그리 훌륭한 학생도 못됩니다. 제가 성구를 외우거나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을 저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집의 문을 두드린다든가 토론을 가르치는 것을 생각하면 몹시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교회의 교리를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 우리의 대답 :

**선** 교사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신체의 크기, 모습, 개성 또는 재능도 다양각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교적이고 자신감 있는 성품을 갖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끄럼을 탑니다. 어떤 사람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운동을 피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다양각색의 사람에게 모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질문을 하신 분은 선교부내에서 다른 사람을 접근하기 어려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수줍음을 탄다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도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하셨을 때 그는 자신이 완전히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병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출애굽기 4:10~12 참조)

예레미야도 수줍음을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와 말이니라”(예레미야 1:6~8 참조)

사람들이 교회에 속하는 것은 선교사들의 설득력 있는 달변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선교사가 충실할 때 성신의 영향력에 감화를 받고 개종합니다. 선교 사업을 행하는 동안 그러한 영향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데는 어느 것보다도 성신의 영향력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주님은 왜 경험도 없는 젊은 남녀를 선교사로 보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째서 복음에 대한 지식도 많고 잘 가르치는 사람만 골라서 보내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무엇보다도 선교사가 겸손하고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연약하게 하였음은 저들로 겸손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은 내 앞에 겸손하게 임하는 자 모두에게 흡족할지니 저들이 내 앞에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질진대 내가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하리로다”(이디서 12:27)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겸손하고 신앙을 갖고 선교사로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주님께서 약한 것을 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할 때가 되면 선교사로 출발할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가운데 발전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봉사함으로써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일생 동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은 모세와 예레미야가 스스로 부적합하다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주님은 거의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14세의 소년 요셉 스미스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주님은 전혀 싸움에 경험이 없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리라는 신앙을 가진 힐라덴의 2,000명의 아들들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폴리앗이라는 거인에 맞서 싸울 소년 다윗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도 필요로 하십니다.

## 청소년들의 대답 :

우선 선교 사업에 관해 생각하고 공부하고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세미나리와 개인 학습을 통해 발전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스스로 무엇인가 성취할 수 없을 때는 최선을 다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수줍음으로 인해 방해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간증을 굳게 키우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항상 도움을 구하십시오.



에버 카라스코, 17세  
페루 쿠스코

나는 당신의 느낌을 잘 이해합니다. 나 자신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면서 경전을 읽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31편 3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운을 내어 기뻐하라. 이는 네가 전도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네 혀가 풀리리니,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크게 기뻐할 즐거운 소식을 전파하라.” 이 성구는 이 질문에 관해 나에게 참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디 스위니, 17세  
매사추세츠 아가вам

이것은 당신이 어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공헌하고자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할 때 그분이 우리의 노력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선교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의문과 불안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저는 문 옆에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반자가 제 대신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스스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상 인생에는 우리 스스로 실천하지 않고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영을 가르치는 교본이 있기는 하지만 물 속에 뛰어들기 전에는 수영을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원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도와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가르시아 장로, 20세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선교부

수줍음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모세도 부름을 받았을 때 완전하지 못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자신이 부여받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세는 성공했습니다. 당신도 진심으로 복음을 가르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훌륭한 웅변가나 대 학자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재능이 부족할 때 영은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당신 입에 넣어줄 것입니다.



노라 벨트란, 18세  
볼리비아 라 파즈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가르칠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귀환 선교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 친구에게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며 그들에게 간증을 전하고 금식 간증 모임이나 기타 기회가 있을 때 간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간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선교사로 나갔을 때 간증하기가 쉽습니다. 경전을 읽고, 읽고 있는 성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두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구를 외울 수 없을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성구에 대한 색인 카드를 만드십시오. 선교사로 나가면 부끄러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할때 주저하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

켈리 오비트, 13세  
매사추세츠 사우스 햄튼

# 굶주리지 않게 함



원틴 앤더슨 사진

선교 사업을 하십시오

우리는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눔으로써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35 참조)

# 형제애

돈 엘 서얼

티노와 킴 모레이라는 포르투갈에 교회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며 기쁨을 얻는다.

**로** 렌티노 모레이라에게 복음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새로 발견한 보화였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백 명 이상의 개종자를 내게 하고 그의 형 조아킴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시작했다.

친구들이 티노라고 부르는 로렌티노가 포르투갈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인 포르토에 있는 그의 집에 있던 어느 날 두 명의 젊은 여성이 그의 문을 두드렸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이미 다른 교회에 나가고 있으며 그들이 토론하고 싶어하는 종교에는 관심이 없다고 정중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예배당에서 영화를 보고 싶어나고 물었을 때 그가 동의했다.

영화 첫번째 시현은 그에게 큰 흥미를 끌었으며 곧 선교사 토론을 듣게 되었으며 다시 다음 토론을 듣게 되었다. 두번째 토론을 들었을 때 그는 영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이 젊은 여성들이 가르치는 것이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선교사들이 내가 진리에 관해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때 이것은 나에게 새로운 방법은 아니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3년 전에 그는 고대 문명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읽었으며 그 기원이 하나님과 분명 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티노는 2년 이상이나 그가 젊은이로서 알게 된 그 문명에 관해 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계속해 왔다.(그는 물론경에 관해 배우게 되었을 때 그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응답을 받았다고 느낀다.)

선교사로부터 토론을 듣기 시작한 후 어느 날 저녁 티노는 교회 교리에 관해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였는가? 그래서

티노는 그 질문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로 여쭙었다. 즉시 “나는 마음의

화평과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으며 곧

기쁨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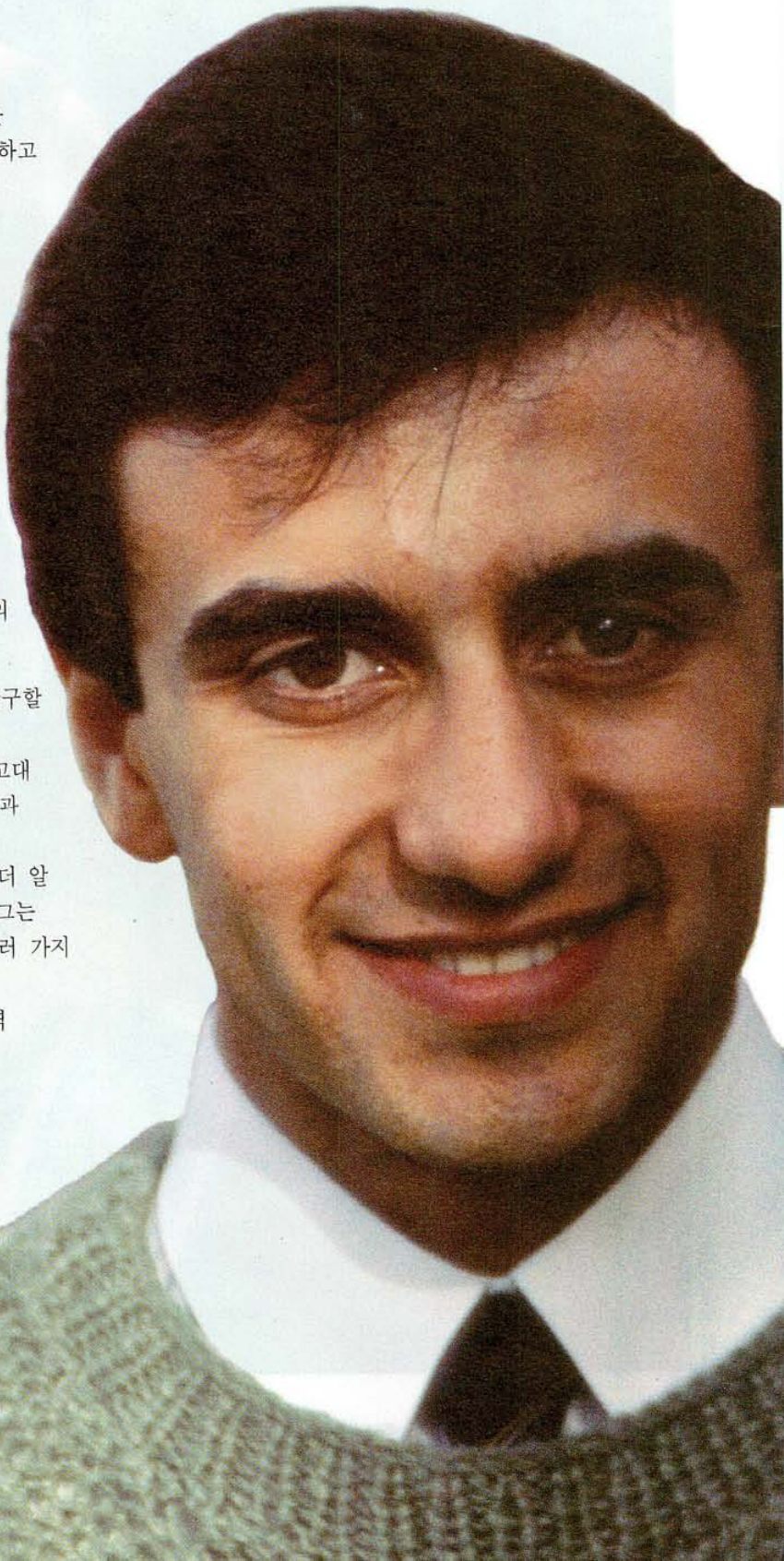
나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

이것이

응답이야.’”





그는 자신이 배우고 있는 복음을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었다. 예전에도 “나는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었습니다.”라고 티노는 기억한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관해서는 자신의 논리 이외에 다른 것은 없었다. 이제 구원의 계획에 관해 알게 되자 그는 다른 모든 사람도 알게 되기를 원했다. “나에게는 아주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그 “좋은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의 형인 조아킴이었다. 티노가 김을 침례식에 초청했을 때 김은 그의 동생이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무척 놀랐다.

그 형제들은 여러 해 동안 서로 각기 다른 관심사를 추구해 왔다. 김은 마약을 복용하고 방탕한 생활을 해 왔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의 생애는 소망이 없었다. 김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교회에 대해서 몰랐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티노가 가족 가운데 몇 사람이 그의 침례식에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김이 가기로 했다.

예배당은 김에게 전혀 다른 세계였다. 단정한 복장을 한 사람들과 따뜻한 분위기는 더욱 그랬다. 침례식이 끝난 뒤 김은 선교사 토론을 들으라는 권유를 받고 남아 있었다. 그는 모든 것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나는 그러한 나 자신에 놀랐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토론이 끝났을 때 김은 기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는 기도를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그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나는 그때 했던 기도보다 더 훌륭한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는 회상한다. 기도가 끝났을 때 “나는 일어섰습니다. 마치 날아갈 듯했어요.” 그는 선교사들에게 되풀이해서 물었다. “이것이 무엇이지요?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느끼는 이 느낌이 무엇입니까?” 커다란 화평의 느낌과 빛과 기쁨이 그에게 엄습해 왔다. 저녁 내내 김은 그가 느낀 바를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나 다음날 그는 그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에게 확신시켰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야, 티노야, 난 더 이상 너희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아.”

그러나 그 다음 주 동안 그는 기도를 하고 났을 때 느꼈던 훌륭한 느낌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싶어졌다. 티노의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던 김의 결심은 무너졌다. 김이 티노를 흔들어 깨운 것은 어느 늦은 밤이었다. 그는 티노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난 내일 교회에 가고 싶어.”

김은 이렇게 말한다. “그 순간부터 나는 침례를 받고 싶었습니다. 다른 토론을 듣자마자 나는 믿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 각자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일은 그에게 기쁜 발견이었다. 그는 그의 동생이 침례받은 지 3주 후에 침례를 받았다.

티노는 침례를 받은 후에 그에게 주어진 모든 부름을 부지런히 수행했다. 그러나 2년쯤 지난 뒤에 그는 그가 더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달았다. 바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었다. 그는 선교사로 봉사함으로써 다른 젊은 사람들도 그가 전에 갖고 있었던 인생에 대한 문제에 관해 대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티노와 마찬가지로 김도 포르투갈에서 선교 사업을 했다. 포르투갈 리스본 선교부의 선교부장인 해롤드 힐렘 부장이 김에게 “모레이라 형제님, 형제님은 선교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김은 이렇게 대답했다. “어떻게요? 저는 돈도 없고 부모님은 회원도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도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교부장은 그가 수개월 내에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계속 권했다. 김은 계속 기도하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했다.

어느 날 밤 꿈에서 그는 선교사 복장을 하고 여행용 가방을 들고 집을 떠나는 자신을 보았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교회를 통해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게 되었으며 조아킴 모레이라는 부름을 받아들이기 위해 학교를 중단했다. 그것은 포르투갈에서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었다. 왜냐하면 대학을 떠나면 복학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들이 선교 사업에 관해 부모에게 말했을 때 두 젊은이는 강한 반대가 있으리라는 것을 기대했다. 부모는 교회가 아들들에게 미친 영향이 큰 것에 감사했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부모는 특히 어머니는 종교를 바꾸는 것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음의 영향은 김과 티노의 가정 생활에서 계속 작용했다. 티노가 선교사로 떠난 지 얼마 안되어 그의 아버지는 침례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근처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던 티노는 아버지에게 침례를 줄 기회를 갖게 되었다. 어머니는 선교 지역에서 오는 아들들의 편지를 읽는 일도 마땅치 않게 여겼다. 김은 어머니가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게 해 달라는 특별한 기도와 함께 한 통의 편지를 집으로 보냈다.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얼마 후에 그들의 어머니는 남편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다.

티노와 김은 선교 지역에서 영적인 힘의 보화를 발견하였다. 김은 다른 교회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업을 했던 사람인 미망인이 된 여인을 가르치려 했던 일을 기억한다. 그 여인은 딸이 말일성도였기 때문에 선교사

토론을 듣기로 했다. 토론이 진행됨에 따라 그녀는 자신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그르다는 생각을 받아들여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모레이라 장로님, 더 이상 이 교리를 듣고 싶지 않군요. 저는 남편이 시작한 선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 재빨리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조용히 기도로 여쭙었다. 그는 그녀의 남편이 이미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확신시켜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다.

후에 그녀의 딸은 김에게 그날 저녁 자신이 개인적인 기도를 한 뒤 누워서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여지게 할 방법에 관해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그때 문득 “나도 방에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선교사들은 진리를 말하고 있단다. 나는 네 엄마가 침례받기를 원한단다.’”

딸의 경험 때문에 어머니는 다시 선교사 토론을 듣기로 했다. 이번에는 그녀에게 다른 영이 임했다. 그녀는 일주일 후에 침례를 받았다.

티노에게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다. 포르투갈 선교사들에게 병역의 연기는 허용되지 않아 티노는 공군에 입대했다. 그는 당시 포르투갈 리스본 선교부의 선교부장이던 알 페리 피클린 부장의 권고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피클린 부장은 모레이라 장로의 선교 사업은 끝난 것이 아니며 다만 “다른 지역으로, 더욱 어려운 지역으로 전근 발령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티노는 계속해서 공군에서 여러 명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었다.

김도 선교 사업을 마친 뒤 몇몇 동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일을 했다. 두 형제의 생애는 여러 면에서 공통된 길을 계속해서 걸어왔다. 두 사람 모두 모레이라라는 이름의 두 자매와 결혼을 했다. 티노와 김은 현재 20대 중반으로서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김이 워드 감독단의 제2보좌로,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으로, 스테이크 선교 책임자로 봉사할 때 티노 또한 워드 장로 정원회 회장으로, 스테이크 선교부장단 제1보좌로, 그 지역의 교회 교육 프로그램 책임자로 봉사하였다. (티노는 현재 리스본에 있는 교회를 위해 일하고 있는 반면 김은 그대로 포르투에 살고 있다.)

그 모든 직책을 수행하고 생활 가운데서 자신의 다른 역할을 해내는 일이 어렵지는 않았을까?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티노는 말한다. “우리가 선교사로 나갈 것을 선택했을 때는 교회에서 활동적인 사람이 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티노가 소개한 친구 가운데 두 명, 즉 호세 고베이아 페레이로와 에르나니 세르키라도 선교 사업을 했다. 티노, 김, 호세와 에르나니는 백 명 이상이 교회에 들어오도록 도와 주었으며 선교 사업이 끝난 지 오래인 지금도 계속해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다.

티노는 이 모든 일이 선교사들이 그의 집 문을 두드림으로써 뿌려진 “최초의 작은 씨앗”이 없었더라면 하나도 가능하지 않았으리라고 회상한다.

현재 그는 경이로움과 열성이 담긴 음성으로 “나무가 계속 빠르게 자라고 있다.”고 말한다.\*

포르투갈 북부에 있는 포르투 시. 이곳에서 모레이라 형제는 교회에 가입했다. 첫번째 선교사들이 1976년에 포르투에 도착했으며, 1987년 7월에는 포르투갈의 두번째 선교부가 이곳에 세워졌다.



저자가 찍은 사진

# 시작이 반

리차드 다니엘스

이 어린이들이 선교 사업을 가족 목표로 정했을 때 그들이 지구 반대 편에 있는 어느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김**과 닐 데이비스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믿는 가정의 출신이다. 그들과 부모 및 네 명의 형제 자매가 가족의 목표를 세우게 되면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초조한 것이다. 시간은 자꾸만 짧아졌다. 그들은 6개월마다 한 가족에게 복음을 소개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이제 그 6개월의 시간이 다 가고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도 아직 관심을 갖고 있는 가족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은 과거에 이러한 목표를 여러 번 달성했다. 데이비스 가족이 말일성도가 거의 없는 메사추세츠주 보스턴과 워싱턴 디시에 살고 있을 때는 많은 가족에게 복음을 소개할 수 있었다. 열 네 살 된 딸인 김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그들이 선교사 토론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집에 그들을 오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밤, 특별 성탄절 프로그램 및 기타 활동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유타에 살고 있으며 복음을 전해 줄 비회원을 찾는 일이 그처럼 쉽지는 않았다. 그들이 목표로 세운 6개월이 거의 다 지나갔지만 그들은 아무도 찾지 못했다. 데이비스 가족은 그들의

“저는 대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몹시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분들과 같은 가족을 갖고 싶습니다.”  
—줄트 케레스티

“저는 줄트를 친오빠처럼 사랑하며 그의 부모인 기드온과 피로스카를 조부모처럼 사랑해요.”  
—신디 데이비스





“우리는  
헝가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면서 몹시  
기뻐합니다.”  
-킴 데이비스

“우리가 케레스티  
가족과 경험한  
일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킴 데이비스  
형제



소망이 의로운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함께 가족 기도를 하고 금식을 했다.  
여섯 명의 자녀들은 각자 기도를 하며  
도움을 간구했다.

그런데 6개월의 마지막째 되는 날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저희 아빠는 기사를 요구하는  
외국에 있는 의사들로부터 우편물을  
받으시곤 했어요.”라고 킴이 말한다.  
그녀의 아버지 킴 데이비스 박사는  
여러 의료 잡지에 연구 자료를  
발표했었다. “그래서 헝가리에서  
편지를 받았을 때 아버지는 그것을  
뜯어볼 때까지 그 안에 특별한 어떤  
것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놀랐어요.”라고 열 두  
살 된 날이 말한다. 편지는 헝가리에  
있는 케레스티라는 이름의 가족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들은 헝가리 국영  
텔레비전에서 유타에 관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거기에서  
교회와 몇 가지 신앙에 관한 것을  
들었다. 케레스티 가족에게 가장 큰  
인상을 준 것은 가족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러한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에 대해 더  
알고 싶었으므로 의사인 아버지와  
의학도인 아들은 오래된 의학 잡지를  
통해 유타에 있는 주소를 찾아냈다.  
그들이 찾아낸 주소는 우연히도 의사  
데이비스 가족의 것이었다. 헝가리에  
있는 가족은 데이비스 박사에게 그들이  
보내는 편지를 교회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족에게 전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물론 데이비스 가족은 케레스티  
가족의 요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 줄



데이비스 가족은 음악을 매우 좋아하는 가족이라 이러한 재능을 줄트와 함께 종종 나누었으며, 줄트는 그들에게 헝가리 문화를 일부 소개하여 그 호의에 답했다.

“그는 우리에게 헝가리 요리도 해 주었으며 헝가리어도 조금 가르쳐 주었습니다.”라고 김은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나누는 가장 큰 기쁨은 줄트의

부모를 헝가리에서 초청하여 솔트레이크시티 성전에서 인봉받게 한 일이었다.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즉시 헝가리어로 된 교회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새로운 친구에게 우송했다.

그런 뒤에 그들은 복음에 대한 간증을 적었다. 그들은 가족 사진과 함께 봉투에 넣어 케레스티 가족에게 보냈다.

케레스티 가족은 그렇게 빨리 미국으로부터 큰 상자를 받게 되어 매우 놀랐으며 큰 기대를 갖고 자료들을 읽기 시작했다. 그들은 편지를 읽고 그렇게 많은 대가족이 가까운 유대 관계를 갖고 있으며 또한 복음에 대한 간증이 강한 것에 더욱 놀랐다. 케레스티 부부에게는 자녀가 한 명 뿐이었지만, 그들은 가족의 강한 단합을 느꼈으며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는 일에 열중했다.

곧 데이비스 가족과 케레스티 가족은 편지와 사진을 자주 교환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아주 친하게 되었어요.”라고 김이 말한다. “그들에게서 편지를 받게 되면 가족이 돌아가면서 읽고 가정의 밤에서도 읽곤 했어요. 우리는 헝가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면서 몹시 기뻐했는데 그 일이 우리를 통해 일어난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동안, 데이비스 가족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선교부장과 연락을 취했다. 그를 통해 케레스티 가족은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사 토론을 할 수 있었다.

“그들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침례를 받게 된다는 편지를 받았을 때는 너무나 기뻐요.”라고 닐이 말한다. “침례를 받고 나서 찍은 가족 사진을 받았을 때 그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었어요.”

이쯤에서 김과 닐의 이야기를 마쳐도 되겠지만 재미있는 이야기가 더 있다. 케레스티의 아들인 줄트는 헝가리에서 유일한 말일성도 독신 성인이었기 때문에 데이비스 박사는 그를 솔트레이크시티로 초청하여 얼마간 그의 집에 머물게 했다. 줄트는 의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데이비스 박사의 연구를 도울 수 있었다.

데이비스 가족의 선교 사업으로 그 가족은 큰 형이자 오빠를 새로 얻게 되었다. 헝가리에서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와 살게 된 느낌은 어떠할까?

“저는 그가 오던 첫날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이름을 발음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나 그 뒤 우리는 아주 친하게 되었어요. 저는 세미나리 새벽반에 참석하는 데 그가 차를 태워다 주지요. 그는 우리 학교에 와서 말씀도 하고 헝가리 요리도 해 주었으며 우리에게 헝가리어도 조금 가르쳐 주었고 여러 가지 특별한 일들을 함께 했어요.”라고

김이 말한다.

“저는 처음에 조금 부끄러웠어요.”라고 줄트가 도착했을 때에 대해 그 집의 장남인 닐이 말한다. “우리는 밖에 나가 정구와 탁구도 했으며 늘 함께 하는 데 익숙해졌어요. 줄트는 가정에서 혼자 자랐는데도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인내심이 많았어요.”

줄트로서는 곧바로 신앙이 강한 말일성도 가정에서 대접받게 된 것을 기뻐했다. 그는 가족의 단합, 가족 기도, 경전 공부, 가정의 밤에 매혹되었으며 서로를 돕는 데에 놀랐다. 데이비스 가족은 음악을 매우 좋아하는 가족으로서 가끔 여러 가지 악기를 함께 연주했다. 그들은 또한 운동을 좋아하는 가족으로서 서로의 경기에 참여했으며 스포츠 활동에도 참여했다.

“저는 대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몹시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줄트는 말한다. “그들을 보면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무척 교육적입니다. 그들은 목표를 세우고 서로 동기를 부여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분들과 같은 가족을 갖고 싶습니다.”

줄트가 데이비스 가족과 일 년 이상 생활했을 때 그는 부모와 교회 당국으로부터 헝가리에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것은 헝가리에도 지부가 조직될 수 있으며 침례를 베풀고 예배당을 짓고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헝가리에서 최초의 회원에 속하는 줄트의 부모는 이러한 일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들은 헝가리와 많은 유대를 갖고 있으므로 그 소식은 김과 닐에게 큰 흥분을 자아내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비회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우선 복음을 사랑하고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간증이 있어야 해요.”라고 김은 말한다. “그렇게 되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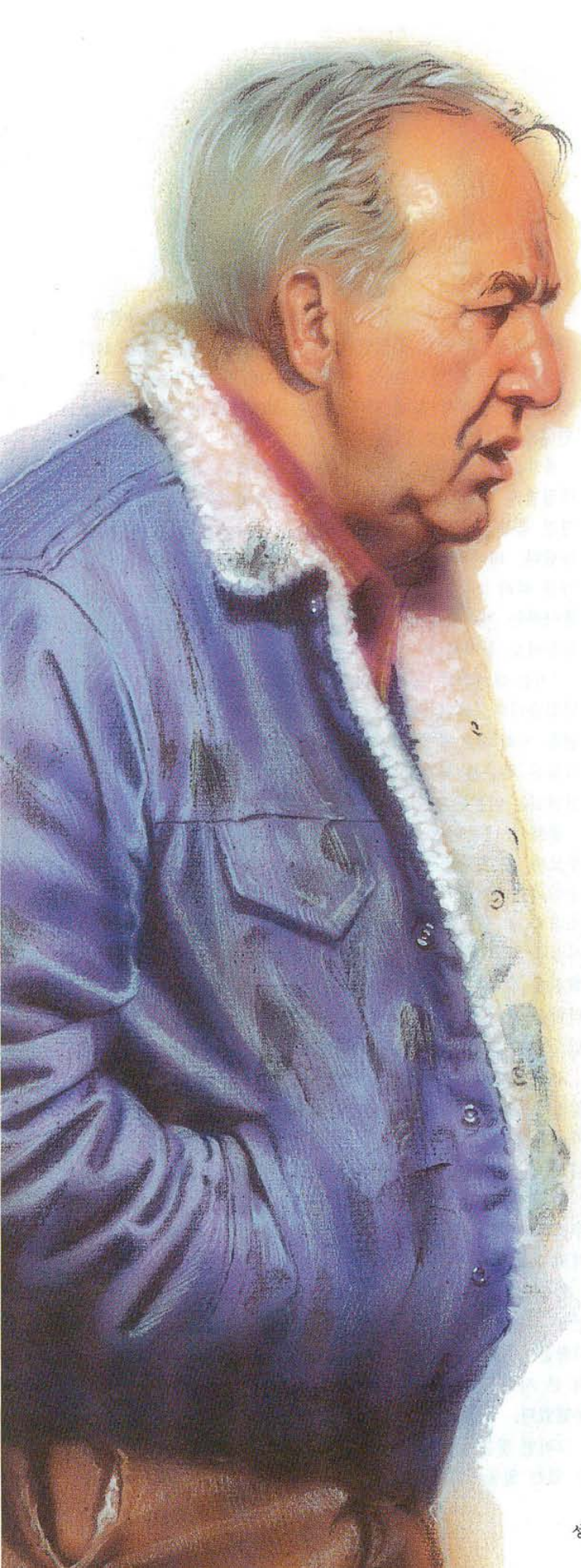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되요. 일단 시작하고 나면 점점 쉬워져요.”라고 닐이 말한다.

일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데이비스 가족이 선교 사업을 가족 목표로 정했을 때 지구 반대 편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거나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에 의해 더 큰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한 것은 여러분이 일단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이를 수 있는 일들이다. \*

# 윌라드 왓츠 계획

엘마 제이 예이츠



“여러분, 잠깐만 보십시오.” 전날 저녁 경기에서  
진 농구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로우더 형제가 말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봉사 계획이 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로우더 형제는 몸을 앞으로 숙여  
팔꿈치를 무릎에 대고 그가 사용하는 검은색 포켓용 달력을  
들고 있었다. 로우더 형제는 마을에 있는 어느 은행의  
부행장으로서 그가 하는 일은 언제나 정확하고 빈틈이  
없었다. 그는 달력을 잠시 살펴 보고는 “자,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었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계획 모임 중 이 부분이 늘  
싫었다. 봉사 계획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일은 아니었다.  
봉사하는 일은 상관없었지만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의논하는 것이 늘 문제였다. 항상 같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세이머 자매님에게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조용해진 것을 보고 로우더 형제가 말했다.

“예, 좋을 것 같군요. 그분은 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니까요?”라고 크리스 프레이가 확신도 없는 말투로  
맥없이 말했다.

나는 의자에 기대어 몸을 뒤로 젖히며 기지개를 켜다.  
“미망인들은 늘 도움을 받으니까 이번 달에는 뭔가 다른  
일을 합시다.”라고 내가 투덜대듯이 말했다.

“카일, 어떤 제안이 있나요?”라고 로우더 형제는 나를  
쳐다 보며 고칠 필요도 없는 넥타이를 매만지면서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혼자 사는 형제님을 돕는  
것은 어때요?”

로우더 형제가 고개를 저으며 짜증스런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는 동안 브래드와 크리스는 미소를 띄기 시작했다.

“윌라드 왓츠 형제님을 활동적인 회원이 되게 할 수 있을 거예요.”라고 나는 웃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카일, 우리 원래의 계획으로 되돌아 갈까요?”라고 로우더 형제가 엄숙하게 말했다.

“왓츠 형제님을 활동적인 회원이 되게 하는 것이 어떠세요?”라고 내가 물었다.

“카일, 나는 어렸을 때부터 12와드에서 살았어요. 내가 알기로 왓츠 형제는 그동안 이 교회에 꼭 두번 왔을 뿐이에요. 한번은 그의 아내 장례식이었고 또 한번은 친구의 장례식 때였지요. 그는 담배도 피우고 욕도 하고 오랫동안 가정 복음 교사의 방문도 거절했어요. 그는 내가 선교사로 떠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련 장로예요.”

“네. 하지만요, 저는 이제 그분을 다시 교회에 나오시게 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카일, 계획 모임을 곧 마치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를 도우려는 노력을 포기하자는 것인가요?”

“카일, 그는 이미 오래 전에 스스로 포기했어요.”

우리는 배가 고파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달의 봉사 계획 대상으로 세이머 자매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교회를 나와 1월의 차가운 공기 속을 걸어서 집으로 가는 동안 나는 왓츠 형제님에 관한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모든 사람이 그를 포기한다면 그의 심정이 어떠할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왓츠 형제님은 우리 집에서 다섯 집 떨어져 있는 붉은 벽돌로 지은 조그만 집에 살고 있었다. 그의 집에는 커다란 차고가 딸려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자동차 정비 일에 종사해 왔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수리를 하기 위해 그의 차고에 수리소를 만들었다. 그는 뚱뚱한 노인으로 백발을 짧게 깎고 머리 모양은 둥글었으며 코는 납작코였다. 그는 거의 말이 없고 웃지도 않았으며 늘 시무룩한 표정이었다.

그 일요일 오후에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는 길을 따라 잔디 위에 오래된 눈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왓츠 형제님의 집을 훑듯 쳐다보았다. 앞 마당에 낡은 트럭이 서 있었으며 거실 커튼은 닫혀져 있었다.

어머니가 점심 먹으라고 부르셔서 왓츠 형제님에 관해서는 곧 다 잊고 말았다.

그 일이 있는 후 나흘 뒤 폭설이 몰아쳐 밤새 18센티미터나 되는 눈이 내렸다. 아버지는 나를 깨워 녀가래를 주시면서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라고 하셨다. 학교 시간에 늦지 않도록 부지런히 치우라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다. 나는 내내 투덜거렸지만 추위를 피해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서둘러 눈을 치웠다. 나는 따뜻한 집안으로 들어가 아침을 먹으려고 하다가 왓츠 형제님이 사는 집 주위에는 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나서 이제까지 해 본 적이 없는 정신 나간 짓을 하기로 했다. 나는 그 거리로 나가서 왓츠 형제님의 집 앞에 있는 눈을 치우기 시작했다.

“에야, 거기서 무엇을 하는 거냐?” 눈을 반쯤 치웠을 때 뒤에서 나직한 고함 소리가 들려 왔다.

놀란 나는 뒤돌아 서서 집 앞에 서있는 왓츠 형제님을 보았다. 그는 손을 낡은 코우트 주머니에 찔러 넣고 머리를 코우트 깃 속에 파묻은 채 서 있었다.

나는 멍하게 말했다. “운동 삼아 눈 좀 치우고 있어요.” 나는 삼을 땅에다 탁탁 내리치고 발을 몇 번 굴러 보았다.

“나는 눈을 스스로 치우지. 네가 돈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라면 줄 돈이 없어.”

“전 돈 받을 생각 없어요.”라고 대답하면서 나는 다시 눈을 치웠다.

그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눈치우는 일을 계속했다. 눈을 치우면서 나는 도대체 왓츠 형제님이 저런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나는 눈을 다 치우고 삼을 어깨에 메고는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에야,”하고 왓츠 형제님이 문앞에서 나를 불렀다. 계단을 내려오는 그의 손에 1달러짜리 지폐가 세 장 들려 있었다. “이것이 내가 가진 전부다. 난 내게 내 일은 내가 하지.”라고 그가 말했다.

나는 돈을 쳐다보면서 “저는 돈을 받으려고 눈을 치운 것이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그는 의아스러운 표정이었다. “너는 톰 조단 씨 아들이지?”

나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가 시키더냐?”

나는 고개를 가로 저으며 학교에 늦겠다고 말했다.

그후 세 번이나 더 왓츠 형제님의 집 앞에 있는 눈을 치웠다. 그때마다 그는 1불짜리 지폐 몇 장을 내게 주려고 했지만 나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마지막으로 내가 눈을 치운 것은 3월말 경에 많은 눈이 내려 쌓였을 때였다. 그는 20달러 지폐를 들고 나왔다. “이것을 가져 가라.”면서 나에게 억지로 쥐어 주려고 했다.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면서 “저는 운동삼아 이 일을 하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는 “누가 이 일을 시켰느냐?”라고 다그쳤다.

우리는 말없이 얼마 동안 마주 쳐다보았다. 그것은 나도 자신에게 물어본 질문이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그를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으로 여겨 버렸다는 사실이었다. 눈을 처음 치우던 그날 이래로 나는 그의 집에서 혼자 살면서 그저 이 생을 떠날 때만을 기다리는 왓츠 형제님을 측은히 여기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은 그 보다는 나은 인생을 누려야 한다. 다음에 그가 교회에 갈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그 자신의 장례식이 될 가능성도 있었다. “저는 그저 아저씨가...” 나는 아랫 입술을 깨물며 머뭇거렸다. “저는 가야 돼요.”라고 말했다. “학교에 지각하고 싶지 않거든요.”

왓츠 형제님은 담배를 꺼내어 입에 물고는 불을 붙였다. 그는 담배 연기를 깊이 마셨다가 내뿜으면서 마치 내가 듣지 않기를 바라는 투로 중얼거렸다. “고맙다. 에야.”

4월말 경의 어느 토요일 아침 청남 청녀들은 세이머 자매의 집 정원을 치우기로 계획을 세웠다. 브래드 힌트와 크리스 프레이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는 함께 걸어갈 수 있었다. 가는 길에 나는 윌라드 왓츠 형제님이 뒷뜰에서 울타리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걸음을 멈추면서 “세이머 자매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갈거야.”라고 말했다.

“네가 이번에도 봉사 활동에 빠진다면 로우더 형제는 너를 감독님과 접견하게 할거야.”라고 크리스가 싱긋 웃으면서 말했다.

“아무도 빠지지 않아. 우리 계획을 바꾸는 것 뿐이야. 우리는 세이머 자매님 집에 전화를 해서 못간다고만 하면 돼. 왓츠 형제님도 도움이 필요해.”

“그 왓츠 영감님?”라고 브래드가 외쳤다. “그 노인네는 네가 도와 주고 싶어해도 필요없다고 할거야.”

나는 왓츠 형제님의 집 마당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너 진정으로 이러는 것 아니지?”라고 브래드가 뒤에서 소리쳤다.

나는 계속해서 걸었다.

브래드와 크리스는 잠시 망설였지만 호기심에 못이겨 곧 나를 따라 왔다.

나는 “저,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밝은 목소리로

왓츠 형제님에게 물었다.

윌라드 왓츠 형제님은 말뚝을 세울 땅을 파다가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손등으로 입을 문질러 닦은 뒤 처음에는 나를 보고 그 다음엔 크리스와 브래드를 쳐다보았다. 그는 “난 너희들에게 줄 돈이 없다.”라고 나직이 말했다.

나는 삼을 집어 들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어색했지만 왓츠 형제님은 우리가 그냥 떠나지 않으려는 것을 보고는 투명스럽게 우리가 할 일을 지시했다. 우리는 곧 일을 시작했다. 브래드와 크리스는 처음에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그들도 열심히 일을 했다. 그것은 생각보다 무척 힘든 일이었지만 우리는 열심히 일했다.

왓츠 형제님은 하루 종일 즐담배를 피워대면서 이따금씩 할 일을 투명스럽게 일러줬다. 몇 번이나 그는 우리에게 가라고 했지만 우리는 일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남아 있었다. 그때가 오후 3시경이었다.

왓츠 형제님을 도와 연장들을 치우고 있을 때 브래드가 말을 했다. “난 집에 가서 차를 손봐야 해.”

“네 골동품 차는 언제 제대로 움직인 적이 있니?”라고 크리스가 물었다.

“난 그 차가 움직였다고 하지 않았어. 손을 봐야 한다고 했지.”

“어떤 차냐?”라고 왓츠 형제님이 물었다.

“아, 1972년 형이에요.”라고 브래드가 말했다.

나는 “저,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밝은 목소리로  
왓츠 형제님에게 물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어색했지만  
왓츠 형제님은 우리가  
그냥 떠나지  
않으려는 것을  
보고는 투명스럽게  
우리가 할 일을  
지시했다. 우리는  
곧 일을 시작했다.



“시간 있으면 내가 손봐 주마.”라고 왓츠 형제님이 말했다.

“아주 고물 차는 아니에요.”라고 브래드가 말했다.

“맞아. 다 괜찮는데 엔진이 안 움직이지.”라고 내가 말했다.

그날 저녁 왓츠 형제님은 브래드의 집에 들러 그 낡은 차를 그의 집 수리소까지 끌고 갔다.

다음 날 정원회 모임에서 로우더 형제는 우리 세 명이 세이며 자매를 돕는 봉사 활동에 빠진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우리는 더 급한 다른 일이 있었어요.”라고 내가 설명했다.

“아, 그래요?”

“네, 우리는 왓츠 형제님을 도와 주었습니다.”

브래드와 크리스를 제외한 정원회 회원 전부가 웃었다. 나는 엄숙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지난 1월 내가 처음으로 왓츠 형제님의 이름을 언급했을 때였다면 농담이었기 때문에 웃음을 기분 나쁘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3개월 동안 나는 그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게 되었으며 마침내는 그와 친하게 되기까지 했다. 나 자신을 위한 어떤 일 때문이었다면 세이며 자매를 돕는 봉사 활동에 불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윌라드 왓츠 형제님의 집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곳에 갔던 것이다.

일주일 후에 왓츠 형제님은 나에게 전화를 걸어 크리스와 브래드를 그의 집으로 데려오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놀랐다. 나에게 전화를 걸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가 바로 왓츠 형제님이었다.

우리 세 명이 도착했을 때 그는 차고에 있었다. 브래드의 낡은 차가 차고 가운데 있었다. 왓츠 형제님은 주머니에서 브래드의 차 열쇠를 꺼내어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번 해 보라.”

브래드는 열쇠를 받아 쥐면서 “고쳐졌나요?”라고 물었다.

왓츠 형제님은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는 돌아서서 작업대로 걸어가 공구들을 한쪽으로 밀어 놓으면서 “해 봐.”라고 말할 뿐이었다.

브래드는 천천히 키를 꽂고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마치 고양이와 즐거워서 목을 가르랑 거리듯이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와, 믿을 수 없어요.”라고 크리스가 외쳤다.

“어떻게 고치셨어요?” 브래드가 물었다.

왓츠 형제님은 다시 돌아섰다. 얼굴은 무표정했으나 그의 눈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좋은 차를 포기해서는 안돼.”

“얼마를 드려야 하죠? 그러니까 고치는 데 얼마나 들었어요?”

“돈은 안들었다. 중고차나 폐차를 사는 곳에서 부속 몇

가지를 구해 넣었을 뿐이야.”

그후에 브래드와 크리스, 그리고 나는 왓츠 형제님의 집에서 살다시피 했다. 우리는 그의 차고에서 일을 하고 앞 계단에 앉아 음료를 마시며 스포츠에 관해 이야기를 하곤 했다. 우리는 그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놀리기도 했다. 우리는 그가 담배를 피울 때마다 생명을 30분씩 단축시킨다고 말해 주었다.

그는 웃으면서 고개를 흔들었다. “담배를 끊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습관이 되었어.” 그러나 그후에 우리가 찾아 갈 때마다 그가 물고 있던 담배를 던져 버리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우리가 차고에 앉아 있을 때 그는 다른 때보다 초조해 보였다. 그는 계속해서 바지 위에도

“그런 좋은 차를 포기해서는 안돼.”라고 왓츠 형제님이 우리에게 말했다. 그후에 브래드와 크리스, 그리고 나는 왓츠 형제님의 집에 가서 살다시피 했다. 우리는 그의 차고에서 일을 하고 앞 계단에 앉아 음료를 마시며 스포츠에 관해 이야기를 하곤 했다. 우리는 그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놀리기도 했다.





손을 비비고 목덜미를 긁적이는가 하면 바닥을 내려다 보고 발을 문질러대기도 했다.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라고 브래드가 물었다.

왓츠 형제님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는 웃으려고 애썼지만 그것이 꾸민 표정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턱수염을 만지작거렸다. “담배를 끊었다. 한 이틀쯤 됐어. 그런데 계속할지 모르겠구나.”

잠시 동안 우리 셋은 조용했다. 그러자 크리스가 꺾충 뛰었다. “아저씨, 성공할 거예요. 담배 생각이 안나게 할 어떤 일들을 계속하시면 돼요. 껌을 씹시나요?”

“지금이라면 못이라도 씹을 수 있겠네.”

“또 바쁘게 움직이셔야 해요.”라고 내가 말했다.

“저에게도 담배를 끊은 아저씨가 한 분 계신데요. 바쁘게

움직이셨기 때문에 담배를 끊을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는 지칠 때까지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그날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왓츠 형제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가 담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도와 주었다. 우리가 그의 집을 떠난 것은 열 시가 다 되어서였지만 그는 담배 생각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아는 한 그는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아저씨, 부탁이 있어요.”라고 어느 날 오후 브래드의 차 엔진 오일을 갈면서 내가 말했다. “이번 주말에 교회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할 거예요.” 나는 어깨를 움직이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와드에 있는 아이들이 연세드신 분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로 한 거예요. 아저씨가 연로한 분이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 함께 가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왓츠 형제님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우리를 한 사람씩 쳐다보고는 자동차 엔진을 쳐다보았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천천히 그는 뒷주머니에서 걸레를 꺼내어 손을 닦았다. 얇은 미소가 그의 입가에 떠올랐다. “내가 마지막으로 교회에 가 본 것은 아내가 죽었을 때였다. 3년도 더 되었지. 가끔 교회에 가보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갈 만한 그럴싸한 이유가 없었단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

“이제는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만들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아시잖아요. 우리도 그곳에 있을 거예요.”라고 내가 말했다.

“너희들은 왜 내가 그런 멋진 식사를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느냐?” 그는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얼마 동안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의 질문을 생각해 보았다. “우리와 친하니까요.”라고 내가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글쎬다. 잘지 모르겠구나. 사람들이 쳐다보겠지. 웬일일까 라고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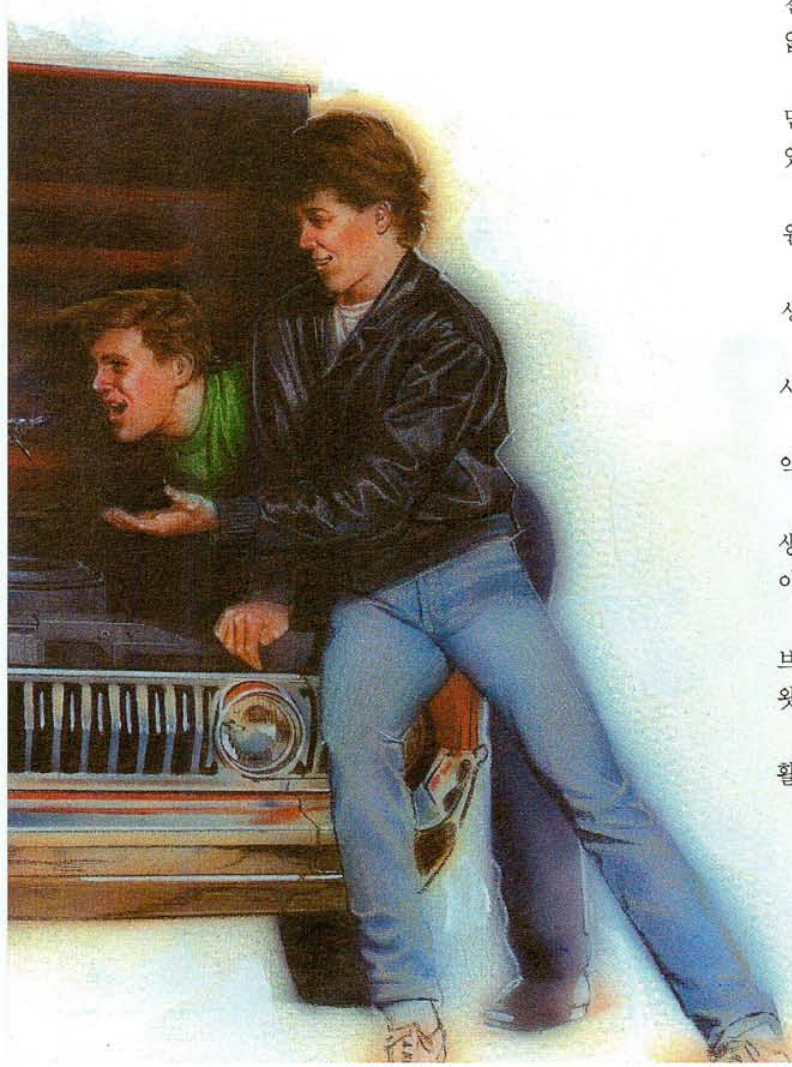
“우리가 있잖아요. 모임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을게요. 약속해요.”라고 브래드가 말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왓츠 형제님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드디어 그의 얼굴이 부드러워지면서 이렇게 말했다. “생각해 보자꾸나.”

저녁 식사 모임이 있던 날 저녁 나는 긴장되어 있었다. 브래드와 크리스는 내가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 하는 동안 왓츠 형제님을 모시고 오겠다고 했다.

“오늘 누구를 초대했나요?”라고 로우더 형제는 부엌에서 활동실 식탁으로 음식을 나르는 나에게 물었다.

“왓츠 형제님이요.”



로우더 형제는 한숨을 쉬었다. “언제나 그 왓츠 형제에 대한 생각을 버리겠습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왓츠 형제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날 형제가 이제까지 먹어보지 못한 가장 좋은 음식을 사 주겠오.”라고 그가 말했다.

바로 그때 크리스와 브래드가 왓츠 형제님의 양편에 서서 활동실 저편에 나타났다. 로우더 형제는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등 뒤에 올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 그가 뒤로 돌아섰을 때, 그의 입은 벌어져서 단힐 줄 몰랐다.

“로우더 형제님,”하고 내가 말문을 열었다. “우리와 친하신 왓츠 형제님과 인사를 나누시죠.”

로우더 형제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손을 내밀며 왓츠 형제님을 맞이했다. “형제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그는 머뭇머뭇하며 말을 했다. “여기 이 형제들이 형제님에 관해 많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는 우리를 쳐다본 뒤 다시 그를 보면서 말했다. “이제 이 형제들이 한 말을 다 믿어야겠군요.”

왓츠 형제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소년들이지요. 그들의 얘기는 다 믿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브래드와 크리스가 왓츠 형제님을 모시고 가자 로우더 형제는 나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군. 내가 멋진 식사를 빚겠군.”

나는 고개를 저으며 흥분된 나의 감정을 억제하려 애썼다. “괜찮아요. 잊어버리세요.”라고 내가 말했다. “내기를 하기 위해 한 일이 아니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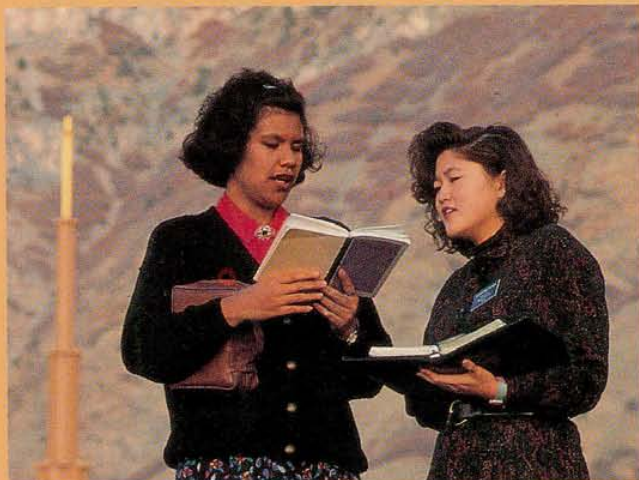
“윌라드 형제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날 형제가 이제까지 먹어보지 못한 가장 좋은 음식을 사 주겠오.”





“암몬과 라모나이 왕”, 스코트 스노우 그림

모사이야의 아들인 암몬은 레이멘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는 체포되어 라모나이 왕 앞에 끌려 나왔다. 암몬은 라모나이 왕의 은총을 입어 왕궁에서 시종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후 암몬은 적들이 훔쳐 놓은 양떼를 다시 모을 수 있었다. 라모나이 왕은 암몬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암몬은 왕 앞에 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및 복음에 대한 질문에 대답했다. 라모나이 왕은 영에 압도되었으며 그로 인해 개심하였다. 곧 많은 백성들이 왕의 모범을 따랐으며 레이멘인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엘마서 17~19장 참조)



“그 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 원할진대  
그 일에 부름을 만나니, 보라, 받은 이미  
무르익어 추수할 때로다. 보라, 힘을  
다하여 낫질하는 자는 창고에 쌓아 두는 자니, 파멸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육을 구원시키느니라.”(교리와 성약  
4:3~4)